





들어가는 말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에서 『알기쉬운 한중일 이야기(Into the Three Countries)』 개정판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3년 이 책을 처음 선보인 후 7년이 지났습니다. 한, 중, 일, 영 4개 언어로 출간된 이 책은 한중일 각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징을 알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3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7년간 3국 국민들의 삶은 전통을 이어오는 동시에 여러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이에 따른 새로운 통계수치와 다양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 책은 한중일 3국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상호교류를 지속해 왔음을 보여 줍니다. 1999년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3국 정상들의 첫 조찬모임 이후 3국 정부는 2008년부터 독자적으로 3국 간 정상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어 3국 간 체결된 합의에 따라 2011년에는 한중일 3국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상설기관으로서 TCS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 체제 하에 현재 21개 분야에서 장관급 회의가 운영 중이며,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 및 청소년 교류를 통한 인적 교류도 확대되어 2018년에는 한중일 3국 간 방문 자수가 처음으로 3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

12월 개최된 제8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 3국 협력 비전」 문서를 채택함으로써 2030년까지 내다보는 협력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3국 간 교류와 협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며, 따라서 국민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을 통해 의식주를 비롯한 한중일 3국의 전통 문화와 생활 양식을 소개하고, 3국이 많은 부분에서 공유하고 있는 유사점과 각기 다른 매력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한중일 각국에 대한 흥미와 관심, 나아가 각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미치가미 히사시 道上尚史
한일중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알기쉬운 한중일 이야기

Into the Three Countries

목 차

기본정보

한중일 3국 알아가기

지리	08
국기, 국가(國歌), 국화	12
언어	14
유네스코 세계유산	16
공휴일	22

삶과 문화

한중일 3국 이해하기

“Living : 전통 의상, 주택, 색·숫자·선물”	
전통 의상	26
주택	28
색·숫자·선물	32
“Food & Liquor & Tea : 음식, 술과 음주, 차”	
음식	36
술과 음주	42
차	46
“Events : 설날과 결혼식”	
설날	48
결혼식	52
“Sports & Arts : 스포츠와 예술”	
스포츠	56
예술	62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에 대해

한중일 주요 통계 (2018)

기본정보

한중일3국알아가기

- 지리
- 국기, 국가(國歌), 국화
- 언어
- 유네스코 세계유산
- 공휴일

지리

한중일 3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3국은 지리적으로 서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강과 호수, 산이 많다. 3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3.6%를 차지하며 전세계 인구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 도표들은 한중일 3국과 관련한 기본적인 통계 수치를 보여준다. 이번 장에서는 3국의 지리적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국토면적(육지면적)

단위	Km ²
한국	100,000
중국	9,600,000
일본	380,000

출처: 한국 통계청, 중국 중앙인민정부, 일본 총무성 통계국

인구(2018)

단위	1,000 명	세계인구 대비(%)
한국	51,635	(1)
중국	1,392,730	(18)
일본	126,529	(2)
합계	1,570,894	(21)

출처: 세계은행

한국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불리는 한국은 중국과 일본 중간에 위치한 반도국가이다. 약 5천만의 인구나 약 10만km²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수도인 서울특별시, 6개의 광역시와 9개의 도, 그리고 1개의 특별자치시(세종시)로 구성되어 있다. 산지가 국토면적의 70%를 차지하는 한국은 세계적으로 산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중요한 정신적인 상징으로 인식되는 백두산은 애국가에서도 언급된다. 한라산, 지리산 및 설악산은 일년 내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들을 찾는다. 한국의 또 다른 독특한 지리적 특징은 강이다. 한국인의 생활방식의 형성과 국가 경제의 발전은 하천 유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을 가로질러 흐르는 한강은 나라 중심부의 밀집된 인구나 산업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종종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한국, 설악산




한국, 한강

한국, 광화문




중국

 약 960만 km²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토가 큰 국가이다. 인구수는 13억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중국은 23개의 성(省), 5개의 자치구(自治區), 수도인 베이징(北京: 북경)을 포함한 4개의 직할시(直轄市) 그리고 상강(香港: 홍콩)과 아오먼(澳門: 마카오) 2개의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漢)족과 55개의 소수 민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만큼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서쪽 지형은 높고, 히말라야 산맥과 텐산(天山: 천산) 산맥이 중국을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로부터 구분해준다. 동쪽에는 황해(黃海)와 동중국해(東中國海)의 해변을 따라 넓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평야가 펼쳐진다. 북쪽에는 네이멍구(內蒙古: 내몽고) 고원이 위치해 있고 그 가장자리는 넓은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부에는 언덕과 낮은 산지가 대부분이다. 양쯔(揚子: 양자)강과 황허(黃河: 황하)는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하여 인구가 밀집한 동쪽 해안지역으로 흐른다. '중국 5대 명산' 중 으뜸으로 꼽히는 타이산(泰山: 태산) 등 산악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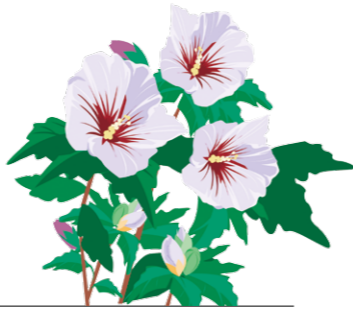
일본

 일본은 아시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나라로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시코쿠(四國), 규슈(九州)를 비롯한 4개의 주요 섬과 4,000개 이상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다. 국토 면적은 약 38만km²이며 인구는 약 1억 3천만명이다. 일본에는 수도인 도쿄를 포함하여 47개의 행정구역인 도도부현(都道府県)이 있으며, 이들은 일본의 8개 지역인 홋카이도, 도호쿠, 간토(關東), 주부(中部), 긴키(近畿), 주고쿠(中國), 시코쿠 및 규슈를 구성한다. 일본은 국토의 4분의 3이 산악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이 많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중 대표적으로 후지(富士)산이 가장 높으며 일본의 대표적인 상징물로도 유명하다. 이 산악지형 사이에 길이가 짧고 물살이 빠른 강과 비교적 큰 평야 몇몇이 자리한다. 일본은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화산이 많고, 온천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 많은 일본인들과 여행객들이 온천을 즐긴다. 한편, 빈번한 지각 운동으로 지진과 쓰나미가 자주 발생한다.



국기, 국가(國歌), 국화

한 국가의 국기와 국가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집약적으로 잘 보여준다. 즉, 각국의 독특한 국기 및 국가는 그 나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한국, 중국, 일본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편 한국은 공식 국화로 지정된 꽃이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상징적인 꽃이 있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



한국 국기의 명칭은 '태극기'이다. 깃발의 가운데에 있는 태극원은 동양철학인 음양의 원리를 바탕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윗 부분의 적색은 양을, 아래 부분의 청색은 음을 나타낸다. 이 음양의 힘은 무한하게 확대하는 우주의 지속적인 움직임과 균형, 조화를 상징한다. 원은 네 모서리에 배치된 4괘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4괘는 각각 하늘, 땅, 불, 물을 상징한다.

한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애국가는 나라가 영원히 발전하도록 하느님이 국가를 보호해주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애국가는 또한 한국인의 기상과 충성심을 통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을 이야기한다. 태극기와 애국가는 1948년 한국의 국기와 국가로 각각 지정되었다.

한국의 국화는 무궁화다. 무궁화에서 중요한 상징의 의미는 '무궁'이라는 단어에 있다. 불멸(eternity)을 뜻하는 이 단어는 한국 문화의 영속성과 한국인의 투지 및 인내력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우싱홍치(五星紅旗: 오성홍기)'는 1949년 중국의 국기로 지정되었다. 깃발의 붉은색은 혁명을 상징하며, 노란색 별은 방대한 적색 땅을 가로질러 비추는 민족통일의 밝은 빛을 상징한다. 하나의 큰 별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작은 별들은 중국공산당(中國共產黨)과 중국인민의 단결을 상징한다.

현재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義勇軍進行曲)'은 시인 티엔 한(田漢)의 작사와 니에 얼(聶耳)의 작곡으로 1935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이 곡은 원래 중국 동북부 지방에서 항일 운동에 나선 용감한 사람들을 묘사한 1930년대 영화 '평원얼녀(風雲兒女: 풍운아녀)'의 주제가였다. 이 노래는 1949년 임시 국가로 선정되었다가 1982년 공식 국가로 채택되었다.

중국은 국화를 특별히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무단(牡丹: 모란)이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



일본 국기의 공식명칭은 '니쇼키(日章旗: 일장기)'지만 통상적으로는 '히노마루(日の丸)'라고 불린다. 히노마루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태양의 원'을 의미한다. 깃발은 흰색 배경에 태양을 나타내는 크고 붉은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일본이 스스로를 아시아의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해 뜨는 나라'로 지칭하듯이, 태평양 위로 떠오르는 동쪽 해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일본의 국가는 '기미가요(君が代)'라 불리며 그 가사는 헤이안(平安) 시대(794 - 1185)에 쓰여진 옛 시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기미가요는 국가로 인정되기 전부터 오랜 역사를 자랑했고 일본인들 가운데 널리 사용되었다. '기미'는 천황을 지칭하고 '요'는 나라를 의미한다. 천황의 지위는 국민 모두의 입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기미가요의 가사를 국가의 영원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기도로 해석한다. 1999년에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각각 국기와 국가로 제정하는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이 통과 및 시행되었다.

일본에는 공식 국화가 없다. 그러나 황실 가문의 문양인 키쿠(菊: 국화꽃)가 일본인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인 국화로 인정받아 왔다. 또한 사쿠라(櫻: 벚꽃)는 일본을 상징하는 꽃으로 자주 사용된다.

옛 시인의 와가(和歌)와 단가(短歌)에서 사쿠라가 '꽃'의 의미로 사용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문화 속에서 벚꽃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언어

언어는 각 국에서 오랜 역사에 걸쳐 문화와 자연환경의 영향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각각 고유한 언어와 표기체계가 발달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3국이 공통적으로 한자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한자의 모양과 뜻이 3국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3국의 언어 모두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아래 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중국어 및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 언어는 3국과 그밖의 세계 여러 나라를 이어주는 상호 소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가별 상용한자 수

단위	글자
한국	1,800
중국	2,500
일본	2,136

출처: 한국 교육부, 중국 교육부, 일본 문화청

한중일 언어교육이 실시되는 국가의 수

단위	국가 및 지역
한국	60
중국	162
일본	142

출처: 세종학당재단, Hanban(중국어보급위원회), 일본국제교류기금

한국



‘한국어’와 고유 문자인 ‘한글’은 한국인들에게 강한 민족 정체성을 부여한다.

한국의 상류층은 오랫동안 고전 문어체인 한자(한문)를 사용하였다. 이에 반해 여성, 중류층 및 하층 계급은 한국어 발음을 나타내는 한자체계인 이두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인식한 세종대왕과 몇몇 학자들은 새로운 자모 체계를 가진 한글을 창제하여 1446년에 반포하였다. 이 새로운 문자 체계는 5개의 발성적 위치를 본 뜬 14개의 자음과 우주의 세 가지 기본요소(하늘, 땅, 사람)를 나타내는 10개의 단모음으로 구성된다. 한글은 배우고 쓰기가 쉽기 때문에 한국의 문맹률을 낮추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훈민정음’은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에는 뛰어난 과학수준과 사회적 실용성을 인정받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국의 표준어는 수도인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되는 말과 억양이며, 지방마다 고유한 방언이 존재한다. 한국의 방언은 전통적으로 각 행정구역을 토대로 분류되는데 그중 제주도의 방언이 가장 독특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어에는 광범위한 높임법과 경어가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사용되는 존대법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한 것이다. 한국에서 적합한 존대법의 사용은 연령, 성별, 사회적 신분 및 두 화자 간의 친분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일본어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단순하고 덜 형식적인 화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한국어 키보드의 국가 표준은 두벌식이다. 자음은 자판의 왼쪽에, 모음은 오른쪽에 배열되어 있다. 자음, 모음의 순으로 입력하여 하나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 다른 언어의 키보드로 한글을 입력할 경우에도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는 사용자의 기존 한국어 키보드 배치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중국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는 80개가 넘는 언어가 존재한다. 이렇듯 많은 언어 중에 중국의 공식 표준어는 베이징(北京: 북경)의 발음을 토대로 하는 ‘푸통화(普通话: 보통화)’이다.

중국어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UN)의 6개 공식언어 중 하나이다. 중국어에는 몇 개의 대표적인 어파(語派)가 있는데 푸통화는 전체 인구의 약 90%를 차지하는 한(漢)족의 공용어이다. 한족이 사용하는 다른 주요언어로는 광둥화(廣東話: 粵語), 상하이화(上海話: 吳語), 푸저우화(福州話: 閩北語), 푸젠·타이완화(福建·臺灣話: 閩南語), 후난화(湖南話: 湘語), 장시화(江西: 贛語), 객가화(客家話) 등이 있다. 나라의 55개 소수민족 중 후이(回: 회)족과 만(滿)족도 푸통화와 그 문자를 사용한다. 쑹(藏: 티베트)족, 이(彝)족, 몽고(蒙古: 몽골)족 및 웨이얼(維吾爾: 위구르)족 등 29개 소수민족은 그들 고유의 전통 언어를 사용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중국 글자는 약 3,000년 전 조개껍질과 뼈에 새겨진 갑골 문자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고전 서체인 원유엔(文彥: 문언)을 사용해 왔지만 20세기 초반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을 통해 현대 바이화(白話: 백화)가 중국에서 확산되었다. 바이화는 구어체를 토대로 하며 현대 중국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1956년 중국 정부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지엔티쯔(簡體: 간체자)를 발간하였다. 현재 중국 본토의 사람들은 대부분 지엔티쯔를 사용하며 전통적인 번체자 한자는 홍콩, 마카오 및 타이완에서 널리 사용된다.

중국의 발음부호인 핀인(拼音: 병음)은 1958년에 채택되었다. 이는 음의 높낮이를 네 가지로 구분한 4개의 성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핀인을 통해서 자판을 이용해 컴퓨터에 한자를 입력할 수 있다.

일본



일본에서는 ‘니혼고(日本語: 일본어)’가 사용된다. 아직까지 다양한 지방에서 방언이 사용되고 있지만 현대에는 매체의 발달로 인해 도쿄 방언을 토대로 한 효준고(標準語: 표준어)가 일본 전역에 전파되었다. 일본어는 터키어나 몽고어 같은 알타이계 언어에 가까우며 한국어와 문법상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본어의 표기는 기본적으로 간지(漢字: 한자), 히라가나(ひらがな), 및 가타가나(カタカナ) 세 가지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간지는 표의문자로 간주되며 각 한자는 일본어로 보통 하나 이상의 발음을 가지고 있다. 중국 표기법이 일본으로 도입된 후 중국의 문자를 변형시킨 두 가지 음표문자, 즉 히라가나와 가타가나는 각각 48글자로 구성된다. 히라가나는 간지를 간략화시킨 형태로부터 유래되었다. 히라가나는 10세기 전 주로 여성들에 의해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일반적인 일본어표기에 사용되고 있다. 가타가나 역시 간지를 간략화하여 만들어졌으며 간지 외의 외래어를 표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히라가나와 다르다.

케이고(敬語: 경어)는 일본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요소이다. 케이고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본 사회에서는 공손한 말을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중요한 만큼 케이고를 올바르게 익히는 것은 어렵다. 대화 중에 케이고를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분, 지위, 나이 및 성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워드 프로세서 등 기기를 사용하여 일본어를 입력할 때는 먼저 발음에 따라 입력한다. 일본어 발음을 입력하면 ‘가나(仮名)’ 또는 로마자가 화면에 표시되고 그 중에서 글자를 선택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UNESCO)는 각 국가의 지리,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는 동시에 인류에게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선사하는 대상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세계유산은 3국의 다양한 자연과 문화를 보여준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복합유산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제 3국 각국의 다양한 세계유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해인사 장경판전

장경판전의 건물과 팔만대장경 목판은 해인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두 가지 역사 유적이다. 경상남도 가야산에 위치한 장경판전은 불교경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건물이다.

8만여 목판으로 이루어진 팔만대장경은 13세기 부처의 힘에 의지해 거란의 침공을 물리치고자 하는 소망을 바탕으로 조각되었다. 이는 당시의 철학, 종교, 도덕, 사회 및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불교경전의 총서이다. 그 정밀함과 예술성은 보존가치가 매우 높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장경으로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팔만대장경을 보관·보호하기 위해 지어진 장경판전의 구조 역시 문화적, 과학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건물에는 습도나 온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환기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과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구조물로 평가받고 있다. 1995년 해인사의 장경판전은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었다.



창덕궁

서울 중심에 위치한 창덕궁은 조선왕조 시대(1392 - 1910)의 왕궁이며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적지 중 하나로 인정받는다. 이 궁궐은 200년 동안 역대 왕과 왕족의 침전으로 사용되었다.

창덕궁은 15세기 초에 삼국시대(BC 57 - AD 668)부터 전래된 독특한 설계양식에 따라 건축되었다. 창덕궁은 자연 수림 속에 조화를 이룬 설계로 더 유명하다. 예를 들어, 궁궐의 후원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잔디밭, 연못, 석교, 언덕 및 정자와 같은 한국 정원의 전통적인 요소들로 섬세하게 조성되었다. 창덕궁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도는 국내 및 해외 여행객에게 가장 인기 있고 잘 알려진 곳이다. 2007년 유네스코는 공식적으로 제주도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제주도는 장엄한 자연풍경을 가진 화산섬으로 유명하며, 주요 관광지로는 한라산 국립공원, 성산일출봉, 그리고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들 수 있다.

한라산은 수십억 년에 걸친 화산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산으로, 경사는 완만하지만 남한에서 가장 높다. 한라산은 고도에 따라 온대부터 한대의 식물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성산일출봉은 해저에서 수성화산 분출에 의해 형성된 응회구이며 정상에 큰 분화구가 있다. 용암동굴계에는 기생화산인 거문오름을 포함한 5개의 용암동굴인 뽕뽕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그리고 당처물동굴이 포함된다. 각 용암동굴의 규모와 복잡한 구조 그리고 석회질 생성물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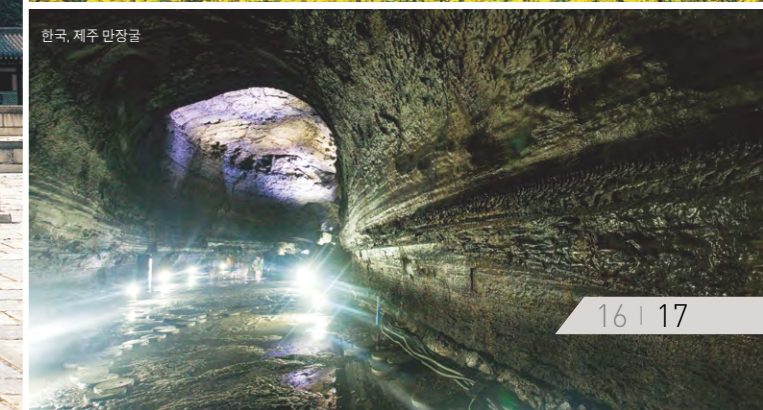
한국,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목판



한국, 창덕궁



한국, 제주 화산섬과 성산일출봉



한국, 제주 만장굴



베이징(北京: 북경)과 선양(瀋陽: 심양)의 명(明)과 청(淸)시대 황궁

베이징(北京: 북경)과 선양(瀋陽: 심양)에 위치한 명(明) 왕조 시대(1368 - 1644)와 청(淸) 왕조 시대(1636 - 1912)의 황궁은 각각 1987년과 2004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쩌뻬청(紫禁城: 자금성) 또는 구궁보우관(故宮博物院: 고궁박물관)으로 알려진 명 왕조 황궁은 베이징시 중심부에 위치하며, 지난 500년간 중국의 역사를 보여준다. 선양의 황궁은 1625년 건설되었고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가 집약되어 있다.

베이징의 쩌뻬청은 거대한 직사각형 부지 안에 세워졌다. 성벽 내에 있는 건축물은 좌우대칭으로 배열 되어있고, 전면에는 외조(外朝)가, 후면은 내정(內廷)이 있다. 이러한 설계와 공간배열은 고대 중국에서 이뤄진 도시계획과 전통적인 궁정 건축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양의 황궁은 베이징의 황궁보다 규모는 작지만 만주(滿洲)족, 몽고(蒙古: 몽골)족 등 소수민족 문화의 독특한 역사와 예술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중국, 청 왕조의 황궁



중국, 명 왕조의 황궁



진시황릉(秦始皇陵)

진(秦) 왕조시대(BC 221 - BC 207)의 진시황릉(秦始皇陵)은 진시황(秦始皇: 진 왕조의 첫 황제)의 무덤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진시황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왕조를 건국한 인물이다. 그의 사후에 수천 개의 병마용(兵馬俑: 병마용)이 무덤의 가운데에 순장되었다. 72만 명의 노동자들이 36년에 걸쳐 축조와 기타 순장품을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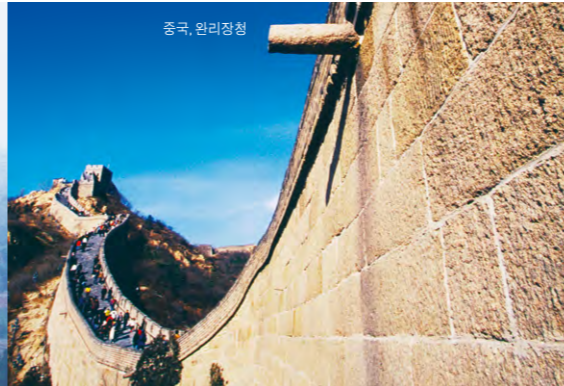
진시황릉은 중국의 역사와 건축학을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이다. 병마용과 동마차는 고대 중국인의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을 보여준다. 특히 병마용은 그 당시 병사들의 모습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고 한다. 진시황의 지하무덤과 병마용의 발견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되었다.



중국, 진시황릉



중국, 원리장청



중국, 원리장청



원리장청(萬里長城: 만리장성)

원리장청(萬里長城: 만리장성)은 중국 고대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이 장대하고 웅장한 건축물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을 바탕으로 약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 완성되었다. 원리장청은 1987년 중국 최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금도 그 역사적, 건축학적 중요성은 전세계 관광객을 매료시킨다.

원리장청 축조는 원래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하는 중국 각 왕조의 군사적인 방어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측량 결과에 따르면 벽돌로 만들어진 원리장청은 중국 동부지역에서부터 고비사막까지 약 8,850 km에 걸쳐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원리장청은 여러 개의 짧은 성벽을 이어 만들었기 때문에 비연속적인 구조를 가진다. 원리장청 중에서 명(明) 왕조 시대(1368 - 1644)에 지어진 바다링(八達嶺: 팔달령)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일본, 호류지 지역의 불교기념물



일본, 히메지 조

히메지조(姫路城: 히메지성)

효고현(兵庫県)에 위치한 히메지조(姫路城: 히메지성)는 호류지(法隆寺) 지역의 불교기념물과 함께 1993년 일본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록되었다. 히메지조의 원형이 되는 건축물은 1333년에 세워졌다.

이 성은 5층의 다이덴슈(大天守: 대천수)와 3개의 쇼덴슈(小天守: 소천수)를 포함하여 모두 8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성 전체는 해자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견고하면서도 우아한 건축물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안된 일본의 독특한 성곽 구조를 잘 보여준다.

히메지조는 또한 목조 건축물의 걸작이다. 흰색 벽을 가진 웅장한 위용으로 인해 '시라사기 조(白鷺城: 백로성)'라고도 불린다. 또한 연립식천수각(聯立式天守閣)이라 불리는 복잡한 구성은 이 성을 일본에서 희소성을 지닌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일본의 17번째 성 건축물이자 소중한 문화 자산인 히메지조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빈다.

일본

호류지(法隆寺: 호류사) 지역의 불교기념물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나라현(奈良県)의 호류지(法隆寺: 호류사)는 1993년 일본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호류지 지역에는 각 시대에 만들어진 건축물 외에도 48개의 불상과 약 2,300개의 국보 및 중요 문화재가 있다.

호류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호류지의 건축 양식은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와 맞아 떨어지며, 독특한 건축물은 일본 예술사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중요하다. 이 절은 607년 소실되었으나 이후 불교가 꽃을 피우고 일본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시발점이 되었다.

호류지는 사이인(西院: 서원)과 도인(東院: 동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곤도(金堂: 금당), 고주노토(五重塔: 5층 탑), 주문(中門: 중문), 카이로(回廊: 회랑) 등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초기 불교 목조 건축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일본, 호류지 지역의 불교기념물

이쓰쿠시마진자 (嚴島神社: 이쓰쿠시마 신사)

이쓰쿠시마(嚴島)는 일찍부터 일본의 토착 종교인 신도(神道: 신도), 즉 다신교(多信教)의 성지로 여겨져 온 유명한 섬이다. 산이 많은 이 섬은 또한 '일본삼경(日本三景)' 중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 바다 위에 세워진 신사 건축물인 이쓰쿠시마 진자(嚴島神社: 이쓰쿠시마 신사)는 일본의 전통적인 신사 건축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1996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쓰쿠시마 진자와 그 입구의 기둥 문인 오오도리이(大鳥居)는 바다 위에 지어진 것으로 유명하다. 바다 위에 건축된 이쓰쿠시마 진자는 바다의 수호신으로 여겨져 왔다. 혼덴(本殿: 본전)을 중심으로 노(能)무대, 가쿠보(樂房), 그리고 그 주위에 크고 작은 사당들이 있다. 이러한 세부 건축물들은 전체의 길이가 약 300m에 달하는 가이로(廻廊: 회랑)와 연결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일본, 이쓰쿠시마 진자 오오도리이



일본, 이쓰쿠시마 진자 ©Marufish

공휴일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설날 / 중국 춘절(春節) / 일본 원단(元旦)

한국의 설날, 중국의 춘지에(春節: 춘절), 일본의 간탄(元旦: 원단)은 3국의 최대 명절이다. 가족들과 모여 함께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고향을 방문한다.

한국
추석

한국의 추석은 가족과 함께 모여 조상께 풍작을 감사드리는 명절이다.

중국
중추절(中秋節)

중국의 추석인 중추우지에(中秋節: 중추절)는 서로에게 더 나은 삶을 기원해주는 명절로 식구들이 함께 모여 보름달을 맞이하며 이를 기념하는 음식인 유에빙(月餅: 월병)을 먹는다.

일본
오본(お盆)

일본의 추석인 오본(お盆)은 조상의 혼이 다시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는 불교행사다. 이 기간에는 모든 이들이 모여 조상께 제사를 지낸다.

	한국	중국	일본
1월	신정 (1월 1일)	원단 (1월 1일)	원단* (1월 1일) 성인의날 (1월 두 번째 월요일)
2월	설날* (음력 1월 1일)	춘절* (음력 1월 1일)	건국기념일 (2월 11일) 천황탄생일** (2월 23일)
3월	삼일절 (3월 1일)		춘분 (춘분을 중심으로 일주일)
4월		청명절 (4월 4일)	"골든 위크"* - 쇼오와의날 (4월 29일)
5월	어린이날 (5월 5일) 석가탄신일(초파일) (음력 4월 8일)	노동절* (5월 1일)	- 헌법 기념일 (5월 3일) - 녹색의날 (5월 4일) - 어린이날 (5월 5일)
6월	현충일 (6월 6일)	단오절 (음력 5월 5일)	
7월			바다의날 (7월 세 번째 월요일)
8월	광복절 (8월 15일)		산의날 (8월 11일) 오본*** (8월 중순)
9월	추석* (음력 8월 15일)	중추절* (음력 8월 15일)	경노의날 (9월 세 번째 월요일) 추분의날 (9월 22일 또는 23일)
10월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국경절* (10월 1일)	체육의날 (10월 두 번째 월요일)
11월			문화의날 (11월 3일) 노동감사의날 (11월 23일)
12월	성탄절 (12월 25일)		

* 각 나라별 규정에 따라 휴일 당일 전후를 포함하여 3일 이상이 될 수 있는 공휴일
** 천황이 즉위할 때마다 바뀜
*** 공휴일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중요시되는 날

삶과 문화

한중일 3국 이해하기

- Living : 전통 의상, 주택, 색, 숫자, 선물

전통 의상

주택

색, 숫자, 선물

- Food & Liquor & Tea : 음식, 술과 음주, 차

음식

술과 음주

차

- Events : 설날과 결혼식

설날

결혼식

- Sports & Arts : 스포츠와 예술

스포츠

예술

전통 의상

한중일 3국의 문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통 의상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각국의 전통 의상은 기후, 문화 및 역사적 특성을 반영하며,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3국의 대표적인 전통 의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한국의 전통 의상은 한복이다. 한복의 기원은 삼국시대(BC 57 - AD 668)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세 나라 중 하나인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한복의 모양과 형태는 한반도의 지역적, 기후적 특성뿐만 아니라 의복의 유행 및 문화,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현재 한복의 모습은 조선시대(1392 - 1910) 말기 평상복으로 입었던 한복과 가장 흡사하다. 현대에는 설날, 추석, 돌잔치, 결혼식 등 특별한 날에 주로 입으며,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볼 수 없다.

한복의 기본적 디자인은 곡선과 선명한 색상을 강조한다. 여성은 저고리와 치마를 입는데 안에는 여러 겹의 속곳을 받쳐입고 발끝이 살짝 올라간 양말인 버선을 신는다.

또한 여러 종류의 모자와 장신구를 착용한다. 겨울 모자인 남바위, 예식을 위한 장식관인 족두리, 비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과거 한복의 색상은 입은 사람의 성별, 연령 및 사회적 신분을 상징하였으나 요즘은 각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된다.



한국, 한복

중국



중국 여성의 대표적인 전통의상인 치파오(旗袍)는 원래 만주(滿洲)족 여성들의 의복이었다. 만주족은 모든 만주를 통치하는 8기제도(八旗制度)라 불리는 행정 조직을 설립하였는데, 치파오라는 이름은 바로 이 제도에서 따온 것이며 '치런'(旗人: 기인), 즉 '만주족의 귀족들이 입었던 긴 상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본래 치파오는 높은 깃과 일자로 뺀 치마가 특징으로, 넓고 느슨한 형태를 띠었으며 연꽃, 용, 그리고 봉황을 묘사하는 문양이 그려진 실크로 만들어졌다. 20세기 초반 상하이(上海: 상해) 지역을 중심으로 치파오는 일상생활에 좀 더 적합하고 편안한 디자인으로 개량되었다. 개량 후의 치파오는 양쪽을 트고 허리를 달라붙게 하여 여성의 몸매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치파오는 짧은 치파오와 전신 길이의 긴 치파오로 나누어진다. 치파오를 여미는데 사용되는 매듭 단추는 판고우(盤扣)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판고우의 모양은 마치 두 마리의 개구리가 만나는 모습과 닮아 이러한 이름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전통 복장은 다른 의복과 차별화된 중국 의상의 고유성을 보여준다.

치파오는 그 우아함 덕분에 저명한 여성들이 중요한 행사에서 선택하는 패션이 되었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중국 여성들도 공식 모임이나 결혼 예복으로 치파오를 선호한다. 치파오의 인기는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 해외에도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치파오



일본, 후리소데

일본




일본의 전통의상은 기모노(着物)이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복장은 헤이안(平安) 시대(794 - 1185)에 개발된 것이다. 현대 일본인들은 신년 하례회, 결혼식, 졸업식, 다과회 등 특별한 날에 기모노를 착용한다. 또한, 기모노를 입고 전통 예술, 고급 레스토랑, 전통 행사 등을 즐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모노는 명주로 만들며 오비(帯)라는 허리띠로 동여맨다. 기모노는 명주실로 베를 짜서 천을 만들어 바느질하여 만든다. 평상시에 입는 기모노는 명주 이외에도 가수리(絹), 츠무기(紬)와 같은 무명으로 만들기도 한다. 기모노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오시마쯔무기(大島紬), 크루메 가수리(久留米絹)와 같이 방적사를 패턴 안으로 염색하고 그 후 직조한 기모노와, 가가 유젠(加賀友禪), 교 유젠(京友禪), 오키나와 빈가타(沖縄紅型) 등 흰색 천에 문양을 염색하거나 붓으로 문양을 염색하여 그린 기모노가 있다.

기모노는 착용 목적과 입은 사람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이 있지만, 여성의 기모노는 크게 '후리소데(振袖)와 '도메소데(留袖) 두 가지 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매의 길이이다. '후리소데'는 입은 사람의 어깨에서 시작해서 뒤통치까지 늘어드는 긴 소매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미혼 여성들이 입는다. 반면, '도메소데'는 소매가 짧고 하반신 부분에만 문양이 있다.



중국

 광대한 영토 면적으로 인해 중국의 전통 주택은 디자인과 양식 면에서 많은 다양성을 보이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이중 가장 잘 알려진 전통 가옥 양식 중의 하나는 베이징(北京: 북경)의 쓰허위안(四合院: 사합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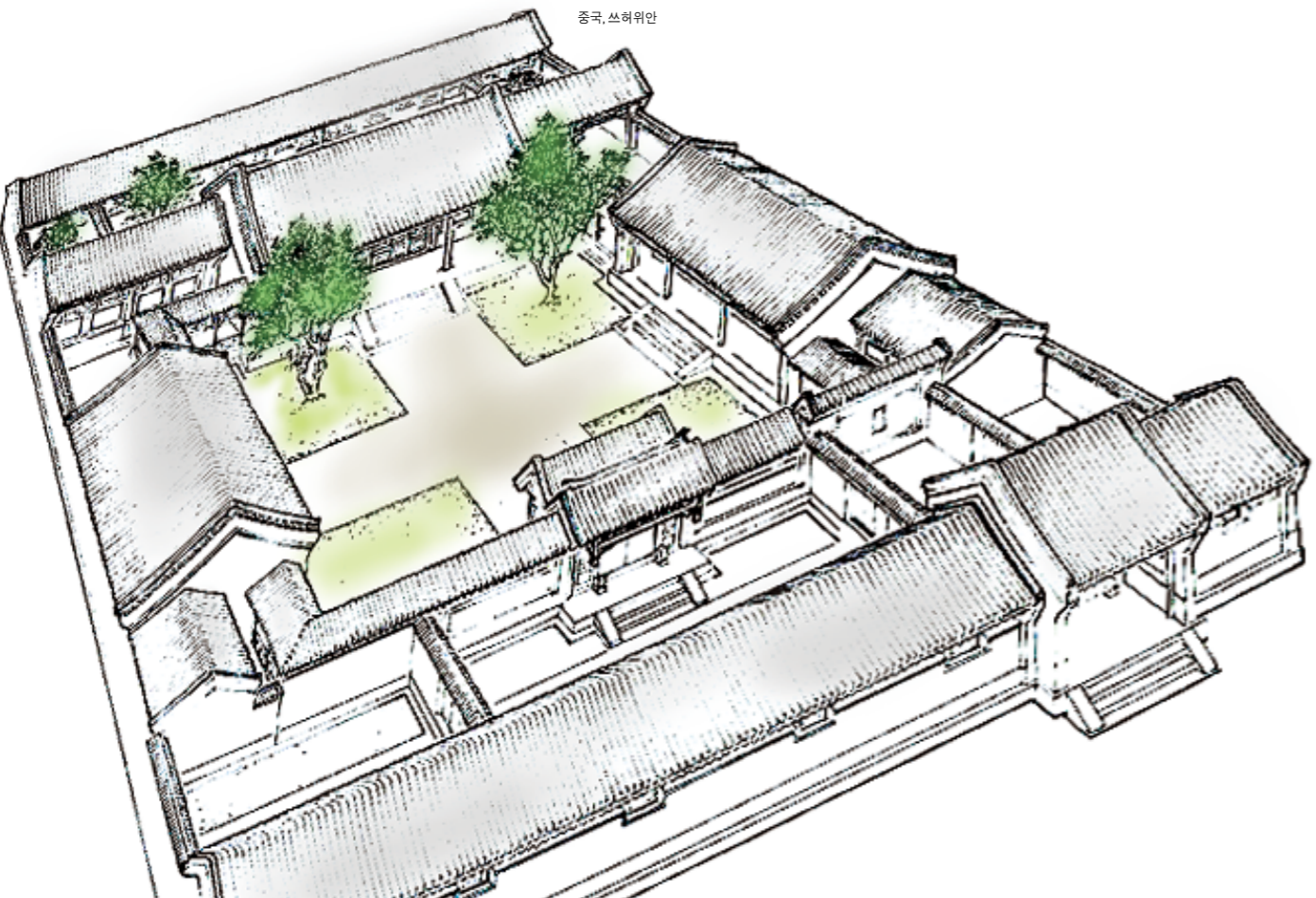
그 이름에서 암시하듯이 쓰허위안은 마당을 중심으로 집들이 안쪽을 중심으로 사면에 위치해 있는 형태를 띤다. 남향채는 쓰허위안의 본채로 전통적으로 집의 가장이 사용한다. 동향채와 서향채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공간이며 북향채는 하인들에게 할당된다. 쓰허위안의 대문은 풍수(風水)라는 중국의 전통철학에 따라 남동쪽의 모서리에 위치한다.

쓰허위안의 대문 안에는 영벽(影壁)이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안마당을 들여다보는 것을 방지하고 악령으로부터 집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듯 안으로 둘러싸인 구조는 겨울 바람과 먼지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공간의 안락함과 사생활을 보호함에 있어 특히 유용하다. 안마당은 조용한 옥외 정원의 기능을 하며 특히 대규모 쓰허위안의 경우 더욱 그렇다.

오늘날에는 서양 문명의 유입으로 중국의 생활 방식이 세계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와 고층 빌딩에서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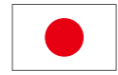


중국, 쓰허위안



중국, 쓰허위안

일본

 일본의 전통 건축 양식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여름이 길어 덥고 습하기 때문에 나무 기둥으로 지탱되는 목조주택이 주를 이룬다. 목조주택은 여름에는 선선하며 겨울에는 따뜻한 특징을 갖는다.

목조 전통가옥은 각 지역의 독특한 날씨, 기후 및 생활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일본 전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방 구조는 16세기 후반 쇼인즈쿠리(書院造) 양식을 기원으로 한 와시츠(和室)이다. 방은 짚으로 만든 다다미(畳), 나무 천장, 화선지 등의 재료로 만든 여닫이 문인 쇼지(障子)와 두꺼운 종이로 만든 여닫이 문인 후스마(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다미는 약 600년 동안 일본의 가옥에 쓰였다. 다다미로 된 바닥은 여름에 시원하며 겨울에는 따뜻하다. 특히 습한 계절에는 현대식 카펫보다 더 산뜻함을 선사한다. 또한 쇼지는 얇은 종이를 만들어져서 공기가 좀 더 쉽게 순환하며 방의 채광이 더 잘들게 한다. 움직일 수 있는 벽의 역할을 하는 후스마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방을 꾸며주는 장식품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쇼지와 후스마는 이동이 가능하여 방을 쉽게 확장 혹은 축소시킬 수 있다.



일본, 와시츠 ©TANAKA Juuyoh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겪어온 일본의 주택양식 중에 가장 두드러진 점은 여닫이 칸막이가 있는 목조 주택의 전통 양식에서 현대식의 주택과 콘크리트 맨션으로의 변화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약 54%가 단독 주택에, 약 44%가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심에서는 공동 주택에 사는 비율이 58%로 높게 나타난다. 오늘날에는 나무 바닥과 철제 기둥 등 서구의 영향을 받은 요소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서양식방과 다다미를 모두 갖춘 집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일본, 지쇼지(慈照寺) 동구당 ©Martin.



색·숫자·선물

문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다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받아들인다. 한국, 중국, 일본은 색, 숫자, 선물에 각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이는 3국의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한국



색

한국인들은 흔히 스스로를 일컬어 '백의민족(白衣民族)'이라고 한다. 이는 예로부터 조상들이 흰색을 즐겨 입었던 것에 유래하는데, 흰색은 모든 색깔의 바탕이 되는 색으로서 포용, 순수, 희생,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통적으로 홍색은 양(陽), 청색은 음(陰)을 상징하여, 이 두 가지 색을 함께 쓰면 우주만물의 시작인 음양화합을 기원하는 뜻을 가진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 후기부터 혼례식에 사용되었던 청사초롱(靑紗燭籠)이 있는데, 청사초롱은 홍사 바탕에 청사로 둘러 만든 등의 한 종류로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집으로 떠날 때와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시집을 올 때 길을 비추어주는 것으로 쓰였다. 청사초롱에 불을 밝힘으로써 신랑각시의 화합과 조화로운 새 출발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은 결혼식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통문화 행사에도 두루 쓰이며 어두움을 밝히고 바른길을 안내함과 동시에 손님을 환영하고 배려한다는 마음을 담고 있다.

한국, 청사초롱



문상을 갈 때에는 전통적으로 흰옷을 입는 것이 예의였으나, 의복이 서구화된 현대에는 문상객의 복장도 변모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화려한 색상의 의복이나 장식은 피하며,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는다. 한편 한국에서는 붉은색으로 이름을 쓰는 것을 불길하게 여긴다.



한국, 백의민족



선물

한국에서는 기쁜 일이나 축하할 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선물을 한다. 명절에는 주로 과일, 육류, 해산물, 음료수 등과 같이 식료품이나 실용적인 생활용품을 주고받는다. 보통 받은 선물을 준 사람 앞에서 바로 열어보지 않는다.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시험에 잘 붙으라는 의미로 끈끈한 엿이나 찹쌀떡을 선물한다.

한국에서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한 후에 친구들이나 친척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는데, 이러한 행사를 '집들이'라고 한다. 집들이 선물로는 보통 비누나 세제, 화장지 등을 선물한다. 거품이 많이 생기는 비누나 세제는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집주인이 새집에서 번창하라는 뜻이 있고, 화장지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라는 의미가 있다.

한편 연인에게 신발 선물을 하면 도망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 연인들은 신발을 선물할 때에는 다시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두 켤레를 선물하기도 한다.

한국, 찹쌀떡



숫자

한국에서 숫자 7은 행운의 숫자로 여겨진다. 이는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국인들은 숫자 3도 좋아한다. '한국인은 삼세번', '만세 삼창', 내기나 게임에서 '삼세판'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숫자 3은 '완성'의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일부에서는 동양의 음양사상에서 '3'을 '1'(첫 번째 홀수로 양을 상징)과 '2'(첫 번째 짝수로 음을 상징)에 이어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첫 번째 숫자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한국인에게 '4'는 불길한 숫자로 여겨진다. 이는 4의 한국어 발음과 죽을 사(死)의 한자어 발음이 같아 죽음을 연상케 하기 때문인데, 때문에 일부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는 4층을 F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



색

중국에서 제일 사랑받는 색은 빨간색이다. 빨간색은 행복, 행운 그리고 성공을 상징한다. 설날이나 다른 축하행사 때도 온통 빨간색으로 물든다.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담은 빨간색 봉투인 홍빠오(紅包)를 주거나, 집집마다 빨간색으로 써붙인 경구인 춘리엔(春聯)으로 장식한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것은 불길하다고 어른들에게 전해 듣는데,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검정색은 엄숙하고 무거운 색이다. 민간에서 전해지는 전설의 '검은 얼굴' 포청천과 같이 정의로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반대로 헤이셔후이(黑社會: 흑사회, 범죄집단), 헤이차(黑車: 흑차, 불법택시)와 같이 두려움, 어둠, 사악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흰색은 중국에서 순수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죽음, 애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 전통 장례식에 사용된다. 태극(太極)은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 음양의 조화를 나타낸다.



중국, 홍빠오



숫자

중국인들은 숫자에 다양한 의미 부여를 한다.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8이다. 숫자 8의 중국어 발음이 '发财(부자가 되다)'의 发(Fa)와 같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휴대폰 번호, 결혼 날짜 또는 차 번호판을 고를 때도 숫자 8을 선호한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도 2008년 8월 8일에 개최된 바 있다.



중국인의 전통 관념상 9는 길한 숫자다. 발음이 '久(오래가다)'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9월 9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백년가약을 맺는다. 연인들은 99송이 장미꽃을 선물하여 "오랫동안 사랑하자"는 뜻을 전한다. 숫자 6은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나타낸다. 발음이 '溜(순조롭다)'와 같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 용어로 쓰이는 666는 누군가를 치켜세울 때 사용한다.

반면에, 가장 싫어하는 숫자는 4이다. 발음이 죽을 '死'자와 같기 때문이다. 일부 고층 빌딩은 4층을 표시하지 않기도 한다.



선물

중국인들은 선물을 주는 행위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이는 성의와 감사를 표시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식으로 여겨기 때문이다. 선물을 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학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물은 크기와 값어치에 상관없이 성의를 중요시한다. 하지만 선물을 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과일 바구니를 사줄 때 배가 있다면 반드시 꺼내야 한다. 배를 선물하는 것은 '离(이별)'을 뜻하기 때문이다. 발음이 '散(헤어지다)'를 연상시키는 부채나 우산도 선물하면 안된다. 또한 친구의 생일선물로 시계를 선물하는 것도 금기시되는데, '终(죽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남성에게 녹색 모자를 선물하면 안된다. 녹색 모자는 남자가 쓰면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일본



색

중국에서 빨간색이 선호되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특별히 선호하는 색이 없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정한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돋보일 수 있도록 남자 하객들은 검은색 정장에 흰색 넥타이를 매고, 여자 하객들은 흰색을 제외한 다른 색상의 옷을 입는다. 장례식에서는 남녀 모두 검은색 옷을 입는데, 남성은 반드시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매야 한다. 축하할 자리나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붉은색과 흰색의 조합(紅白)이 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합은 장식품(배너와 리본), 선물(팥빵)과 음식(어묵)에서 볼 수 있다.



일본, 전통간식 ©wakanmuri

일본, 코하쿠 만주

일본, 어묵



숫자

일본어에서 숫자 4는 불길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4(シ)의 발음이 '죽음'을 뜻하는 단어와 같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호텔에서 숫자 4로 시작하는 층이나 방을 선호하지 않는다. 또한 4만큼은 아니지만, 숫자 9의 발음이 '고통받다(苦しみ)'라는 단어의 발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일부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숫자 7은 행운의 숫자로, 숫자 13은 불운한 숫자로 인식된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3, 5, 7과 같은 홀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의 전통에 따라 신혼 부부에게 돈을 선물할 때에는 300달러, 500달러와 같이 앞자리 수를 '균등하게 가를 수 없는' 홀수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숫자 8 또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끝을 향해 넓게 퍼진 한자어(八)의 모양이 미래의 번영을 상징한다고 한다.



선물

일본인에게 선물을 받을 때, 예의상 겸손하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이 말은 그 선물이 가치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사업상 만남을 가지거나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방문할 때 사탕을 선물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휴가나 출장을 다녀와서 친구와 동료에게 현지 특산품(특히 음식)을 선물하는 것 또한 독특한 관행이다. 선물을 받을 때, 준 사람 앞에서 선물을 열어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일본에는 일년에 두 번,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특별한 날이 있다. 이를 여름에는 오추겐(御中元)이라 하고, 겨울에는 오세이보(御歳暮)라고 한다. 선물을 받은 뒤 감사의 답례로 다시 선물을 하는 것은 일본 특유의 전통이다. 병문안을 갈 때는 꽃을 선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화분에 심은 꽃이 아닌 꽃다발을 선물해야 하는데, 화분은 환자가 침대에 '뿌리' 내리는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일본, 기념품 ©Yusuke Kawasaki

음식



음식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또한 한 사회를 배우고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 중국, 일본은 모두 쌀을 주식으로 하며, 젓가락을 사용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3국은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독특하고 정교한 전통음식을 발전시켜 왔다.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맛은 이러한 고유성을 잘 나타낸다. 한국 음식의 대표적인 맛은 짜고, 툭쏘고, 시고, 매운 것으로 묘사된다. 중국 음식은 보편적으로 달고, 짜고, 맵고, 신 4가지 맛으로 묘사된다. 일본 음식은 달고, 짜고, 시고, 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



한식은 전형적으로 밥, 국 그리고 양념한 채소와 같은 몇 가지 밑반찬으로 구성된다. 보통 밥과 국은 개인 그릇에 제공되는 반면, 주 요리인 고기와 채소전골 및 반찬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식탁의 가운데에 놓여진다. 일반적인 가정식 백반 외에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음식들도 많다. 밥을 다양한 재료들과 함께 김으로 싸 김밥, 떡과 함께 여러 채소, 계란, 고추장 등을 넣고 만든 떡볶이 등이 대표적인 간식거리다.

한국 요리의 특징 중의 하나는 발효 과학의 활용에서 찾을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고유의 발효 음식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만큼 광범위하게 발효 음식을 먹는 나라를 찾기는 쉽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는 젓갈, 고춧가루, 마늘 등으로 만든 양념을 배추, 무와 같은 야채에 버무려 발효시킨 '김치'가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정에서는 긴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담그기 위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대량으로 김치를 담그는 '김장'을 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다른 발효 음식으로는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와 달콤한 쌀음료인 '식혜', 쌀을 발효시켜 만든 술인 '막걸리' 등이 있다.



한국, 김밥 ©Ranirani



한국, 김치 ©이종근



한국, 한정식

한정식

현대 한정식은 과거 궁중연회에서 전형적으로 제공되었던 풍성한 요리들을 간략화한 것이다. 양식에서는 각 코스별로 요리가 차례로 제공되는 반면, 한정식에서는 모든 요리가 한 번에 제공된다. 이러한 상차림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 풍성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신선로, 양념갈비, 해물 요리, 김치, 나물 등 30여종이 넘는 맛있는 음식들을 담은 접시로 상이 가득 찬다.

비빔밥

비빔밥은 한국을 대표하는 요리 중에 하나다. 원래 비빔밥은 제사를 지낸 후 남은 음식들을 한데 섞어 먹었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현대식 비빔밥은 밥 위에 구색을 갖춘 나물, 구운 고기와 계란부침개를 담는다. 숟가락을 사용하여 밥과 다른 재료들을 잘 섞어서 먹는다. 고추장은 비빔밥에 독특한 맛을 더해준다. 비빔밥은 영양가가 많으면서도 저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비빔밥

젓가락과 식사예절

한국인들은 식사를 할 때 금속 재질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한다. 밥과 국을 먹을 때는 숟가락을 사용하는 반면, 젓가락은 주로 반찬을 먹기 위해 사용한다. 차려놓은 그릇은 식사 중에 손으로 들고 먹지 않는다. 현대의 식사 예절은 과거보다 덜 엄격하지만 연장자 또는 손님이 먼저 수저를 들고 식사를 시작한 후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최소한의 사회적 예의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갈비

중국

“식사하셨어요?”라는 흔한 인사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음식은 중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음식은 색깔, 향기 그리고 맛으로 유명하다. 중국에는 풍부한 자원, 다양한 기후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음식 문화가 발전해왔다. 전통적으로 북쪽 지방에서는 밀가루를 기반으로 하는 음식을 선호하는 반면, 남쪽 지방에서는 쌀이 더 인기가 있다. 또한 중국 요리에는 산둥 요리(魯菜), 쓰촨 요리(川菜), 장수 요리(蘇菜) 및 광둥 요리(粵菜) 등 4대 요리가 있다. 맛의 특징으로는 남쪽은 달고, 북쪽은 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소수 민족 또한 고유한 음식과 조리법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는 다양한 딤섬과 바베큐가 있다. 찐 빵에 야채 또는 돼지고기 속을 넣은 빠오즈(包子)는 인기 있는 딤섬 요리 중에 하나다. 남쪽 지방에서는 샤오롱바오(小籠包: 고기만두의 일종)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최근 중국에서 인기 있는 요리로는 베이징 카오야(北京烤鴨: 북경오리구이), 탕추리지(糖醋里脊: 탕수육), 그리고 공바오지딩(宮保雞丁: 매운 닭고기 볶음) 등이 있다. 동시에 만한취엔시(滿漢全席: 만한전석)는 가장 성대한 중국 전통 요리로 알려져 있다.



중국, 빠오즈



중국, 알러우첸(羊肉串)

만한취엔시(滿漢全席: 만한전석)

만한취엔시(滿漢全席: 만한전석)는 만주(滿洲)족과 한(漢)족 두 민족 간 융합의 결과로 탄생했다. 이 화려한 상차림은 하루에 여섯 끼씩 3일 동안 계속되는데 134개의 따뜻한 요리와 48개의 차가운 요리로 구성된다. 과거에는 육지와 바다의 식재료를 사용하여 전세계의 모든 맛있는 진미를 포함했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전설적인 요리법은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또한 음식 재료 중 상당수는 희귀 식물 및 동물로 보호를 받고 있어 만한취엔시의 전통은 이제 단지 전설로만 남아있게 되었다.



중국, 만한취엔시

베이징 카오야(北京烤鴨: 북경오리)

중국에서 오리구이의 역사는 원(元)왕조 시대(1206 - 1368)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이징카오야(北京烤鴨: 북경오리구이)는 중국의 오리구이의 대표 주자이며, 외국인 관광객이 반드시 맛보아야 할 요리 중 하나이다. 겉은 바삭바삭하고 윤기가 나며, 속살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하다. 오리구이는 오이, 소스, 100여장으로 얇게 썬 피와 함께 제공된다.



중국, 베이징 카오야



중국, 젓가락 ©John Morgan

젓가락과 식사예절

중국 사람들은 보통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한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젓가락은 일본과 한국의 젓가락에 비해 길이가 길고 손으로 잡는 부분은 뚱뚱하며 음식을 집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한 손에 그릇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중국, 탕후루(糖葫芦) ©Joni Congo



일본, 가이세키 요리 ©NTO



일본, 니기리 스시

일본



일본 음식은 쌀과 콩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쌀은 일본 음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모든 종류의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콩 또한 일본 음식의 필수 항목으로 간주된다. 또한, 일본 전통 요리는 생선을 활용한 것이 많다. 간장, 미소, 두부 등 일본 사람들이 소비하는 많은 식재료들은 콩으로 만들어진다. 일본 음식의 4가지 특징적인 맛으로는 달고, 짠, 시고, 쓴맛이 있다. 가끔은 글루타메이트에서 나오는 감칠맛(うま味: 우마미)이 추가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일본 가정식은 흰 쌀밥, 생선 또는 고기로 만들어진 주 요리와 채소 반찬, 미소시루(味噌汁: 된장국) 등 국류 및 절인 야채로 구성된다. 일본사람들은 식사 전에 “이타다키마스(いただきます: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데, 이 말은 음식을 마련하느라 수고한 사람과 음식 그 자체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고치소사마데시타(ごちそうさまでした: 진수성찬이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다시 한번 감사를 표시한다.

일본사람들은 고기, 생선, 채소 또는 과일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종류의 요리를 즐길 뿐만 아니라 빵, 국수, 파스타 등 다른 여러 종류의 탄수화물을 먹는다. 스시, 덴푸라(天麩羅: 튀김), 라멘, 그리고 고급요리인 가이세키 요리(會席料理)는 해외에서도 유명하다.



일본, 라멘 ©David Pursehouse

가이세키 요리(會席料理)

일본의 고급전통요리는 기본적으로 가이세키 요리(會席料理), 상에 제공되는 혼젠 요리(本膳料理) 그리고 차와 함께 나오는 차가이세키 요리(茶懷石料理) 세 가지로 구성된다. 특히 가이세키 요리는 에도(江戸) 시대(1603 - 1867)에 개발되었으며 아직까지도 고급 일식집에서 제공되고 있다. 주로 채소로 만든 요리가 많고, 회, 구이, 국을 포함하며 하나씩 순서대로 제공된다. 현대의 일본 정식코스 요리는 가이세키 요리의 종류와 식순을 바탕으로 한다.



일본, 덴푸라



일본, 소바(蕎麦)

스시(壽司)

스시는 가장 유명한 일본요리 중 하나이다. 에도(江戸)시대(1603 - 1867)에 처음 등장한 이후 노리마키(のり巻き: 김말이), 지라시스시(ちらし寿司: 회덮밥), 오시즈시(押し寿司: 틀에 넣어 누른 초밥), 나레즈시(なれずし: 발효초밥) 등 많은 종류의 스시가 생겨났다. 가장 흔한 종류는 식초로 맛을 낸 쌀밥 위에 생으로 또는 익힌 해산물 한 토막을 얹은 니기리즈시(握り寿司: 주먹초밥)이다.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도 스시를 먹기 위해서는 외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맛있는 스시를 만들기까지는 수 년의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집에서는 만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스시는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전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서양에서 만들어진 캘리포니아롤의 인기는 스시가 일본 고유 음식의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음식임을 보여준다.



일본, 지라시스시

젓가락과 식사예절

일본 사람들은 식사할 때 한 손으로 사발 또는 작은 접시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젓가락을 사용한다. 대개 나무로 만들어진 일본 젓가락은 길이가 짧고 한국의 젓가락보다 가볍으며 끝으로 갈수록 가늘다. 음식은 각자에게 할당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별도로 제공된다. 일본 사람들은 식사예절이 엄격한데, 특히 젓가락 예절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올바른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친다.



술과 음주

술은 한중일 3국에서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또한 종교와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종류의 술이 존재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윤활유로 여겨진다. 이번에는 한중일의 대표적인 술과 서로 다른 음주 문화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



술은 한국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화의 일부다. 한반도에서의 술의 기원은 약 2,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들은 손님과 귀한 술을 나눠 마시거나 제사 등 종교적인 행사에서 술을 바치는 관습을 유지해 왔다.

농경 국가로서의 긴 역사를 지닌 한국에서는 쌀, 밀, 찹쌀과 그 외 혼합된 곡물 등이 술을 빚는 주재료로 사용되었다. 특히 쌀은 양조 공정에서 핵심 재료이며, 쌀의 발효 상태가 술의 맛과 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에는 추출 시기에 따라 크게 탁주, 약주, 소주 3가지의 주요한 전통주가 있다. 이외에도 현대의 한국인들은 복분자주와 같은 과일주, 맥주, 꽃술, 약초로 만들어진 약주 등을 즐긴다.

막걸리

쌀을 이용해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맑은 윗층과 짙고 낱알이 많은 아래 층이 형성되는데 아래 층이 물과 함께 걸러질 경우 흔히 막걸리로 알려진 탁주가 만들어진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토속주인 막걸리는 불투명한 유백색이며 부드럽고 매끄러운 질감을 가진다.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6도에서 7도 사이인 상대적으로 순한 술이다. 원래 막걸리는 농부들이 하루동안 힘든 노동을 마친 후 즐겨 마셨다고 한다. 요즘에는 막걸리의 인기가 세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이 김치, 빈대떡 등의 안주와 함께 막걸리를 즐긴다. 또한 웰빙 음료라는 별명이 붙여지면서 막걸리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많은 팬을 확보하였다.



한국, 막걸리

소주

한국사람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16도에서 25도 사이에 해당되는 증류주이다. 소주는 단맛이 나는 약한 보드카와 비슷한 맛을 가지고 있다. 소주 제조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탄올을 희석하여 만드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쌀 대신에 감자, 밀, 보리 또는 타피오카를 사용하여 주조하는 방식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보통 후자의 방식을 사용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소주는 한국인들이 대개 밤거리 포장마차에서 다양한 안주와 함께 즐기는 대표적인 서민의 술이다. 젊은 세대들은 사과, 딸기, 복숭아 맛이 나는 과일 소주를 즐기며, 소주를 칵테일 등 다른 음료와 섞어서 마시기도 한다.




한국, 복분자주

한국의 음주예절

한국에서 술을 마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장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보통 연장자가 술을 따라줄 때 아래사람은 반드시 술잔을 두 손으로 받는다. 또한 연장자 앞에서는 고개를 돌려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마셔야 하며, 상대방의 잔이 완전히 비었을 때 다시 술잔을 채워주는 관습이 있다.

중국

 중국에서 술은 4,00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원래 술은 하늘, 땅 그리고 조상에게 바치는 신성한 재물로 여겨졌으나, 농경 및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술이 생겨나면서 일상생활에서 떼어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술은 연회 및 결혼식 등과 같은 행사에서 소비되며 행복한 순간들을 기념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술은 쌀, 밀 등 곡물로 만들어진다. 곡물은 술의 쓰는 맛을 없애 주고 따뜻한 향과 달콤한 맛을 느끼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중국 술은 바이주(白酒: 백주)와 황주(黄酒)로 나누어진다. 바이주는 알코올 도수가 40도에서 60도 사이에 속하는 증류주이다. 황주는 20도 이하의 알코올 도수를 가진 발효주로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 약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두 종류의 술은 향기 또는 맛의 짙쌔함을 기준으로 하며 더 세부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바이주와 황주의 대표적인 예로는 각각 마오타이주(茅臺酒)와 화다오주(花雕酒)를 꼽을 수 있다.

마오타이주(茅臺酒)

마오타이주(茅臺酒)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마오타이는 이 술을 생산하는 구이저우성(貴州省)의 한 도시 이름이다. 이 술은 고유한 증류 방법을 통해 밀과 기타 곡물을 재료로 하여 만든다. 보통 마오타이주의 알코올 도수는 40도에서 55도 사이이다. 마오타이주는 해외 귀빈을 접대하는 자리에 많이 등장하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술로 알려졌다.



화다오주(花雕酒)


화다오주(花雕酒: 화조주)는 중국 서부에 위치한 저장성(浙江省) 사오싱(紹興: 소흥) 일대에서 만들어졌으며 누얼홍(女兒紅: 여아홍) 또는 장위엔홍(狀元紅: 상원홍)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술은 쌀과 밀로 만들어지며 알코올 도수는 대략 16도이다. 누얼홍과 장위엔홍은 문자 그대로 각각 '붉은 딸'과 '국가 공무원 시험의 붉은 수석'을 뜻한다. 이 이름은 딸이 태어났을 때는 누얼홍을 땅에 묻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장위엔홍을 묻어 딸의 결혼식 연회 또는 아들이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할 때 다시 파냈다는 지방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화다오라는 이름은 술을 넣는 용기의 형태로부터 생겼다. 중국 사람들은 화다오라 불리는 붉은 색으로 장식된 꽃 조각과 문양이 있는 도자를 선호하며 이를 결혼 선물로 보내기도 한다.



중국의 음주예절

중국의 술 문화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실수록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경향은 북쪽 지방보다 남쪽 지방에서 더 두드러진다. 연장자나 상관에게 먼저 술잔을 채워줘야 하며, 술을 마실 때 마다 간베이(乾杯: 건배)를 하며 한 잔을 모두 비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자신의 주량에 맞게 음주를 즐기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일본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해 특별한 주조 기술을 고안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술은 단순히 음료를 넘어서 동료들 또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술자리는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계기로 간주된다.

여러 종류의 일본 술 중에 니혼슈(日本酒)와 쇼추(燒酎)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양조된 술인 니혼슈는 1,500년이 넘는 동안 일본 사람들이 애용해 왔다. 오늘날 사용되는 니혼슈 양조의 기본 공정은 500여 년 이전의 방법과 똑같다. 그에 반해 쇼추는 증류주의 하나로 니혼슈보다 비교적 늦은 시기에 등장하였다. 쇼추의 생산은 대략 500년 전 중국에서 일본으로 증류법이 도입된 후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진다.

니혼슈(日本酒)

니혼슈(日本酒)는 다양한 종교 축제와 결혼식 등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전통적으로 술의 신은 벼농사와 추수의 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본 사람들은 풍작을 기원하고, 풍년을 이루었을 때 술의 신에게 감사를 올렸다. 니혼슈의 주 원료는 쌀과 물이며, 이를 만드는 공정은 좋은 쌀과 물을 찾는 것에서 시작한다. 니혼슈 양조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누룩의 사용이다. 이 양조 공정은 매우 복잡하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구한다. 또한 각 지역의 물과 쌀 그리고 양조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5,000개가 넘는 니혼슈 브랜드가 존재한다. 니혼슈는 다양한 온도에서 즐길 수 있는 알코올 음료이며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쇼추(燒酒)

쇼추(燒酒)는 일본 전역에서 생산되지만 남쪽 지방이 가장 유명하다. 최근 증류 장비의 발전 덕분에 도수가 낮고 좋은 향을 가진 쇼추가 탄생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쇼추 붐이 일어났다. 니혼슈와 마찬가지로 쇼추도 지역과 양조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30개가 넘는 브랜드가 있다. 쇼추는 감자, 보리, 쌀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알코올 도수는 약 30도이며 뜨거운 물을 타서 마실 수도 있다. 젊은 세대들은 가끔 텀블러에 소다와 혼합하거나, 다양한 과일 향을 섞은 추하이(酎ハイ)를 즐겨 마시기도 한다.

일본의 음주예절

과거 일본사람들은 소속감을 형성하고, 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잔을 돌리며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는 상대에게 호의의 표시로 술을 따라주며, 연장자가 아랫사람에게 술을 따라 줄 때 아랫사람은 두 손으로 술잔을 받아야 한다.

차



차(茶)는 인류가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로, 은은한 향과 맛으로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에도 차 문화가 오랫동안 전해져 왔다. 3국은 동일한 재료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서로 다른 차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한국



한국에 차가 처음 소개된 것은 대략 7세기 이후 도당구법승(渡唐求法僧)들에 의해서이다. 이들이 유입한 차는 9세기 이후에 사찰에서 왕실과 관료 문인에게 확산되면서 점차 한국인의 기호와 풍토성이 반영된 차 문화를 형성하였다. 고려시대(918 - 1392) 자기의 발달은 이러한 다구(茶具)의 유행과 관련이 깊다.

한국의 차 문화는 '예(禮)'를 강조한다. '다례(茶禮)'는 한국 차 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다. 불전에서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의식을 '헌다례(獻茶禮)'라 하고 명절 제사상에서 조상님께 차를 올리는 의식을 '차례(茶禮)'라 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계절이 뚜렷한 자연환경과 담박소쇄(淡泊瀟灑)한 선조들의 미감이 침잠된 "맑고 시원하며 소박하고 온화한" 특성의 문화를 구축해왔다.

한국인들은 주로 인삼차, 보리차, 울무차, 현미차, 둥굴레차, 우엉차, 옥수수 수염차, 매실차, 오미자차 등 다양한 곡물차와 뿌리, 과일 등으로 만든 차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찻잎을 우려서 만든 녹차를 마시는 것을 즐긴다.

한국, 홍삼차



중국, 차

중국



중국은 차의 고향으로, 중국의 차 문화는 5,00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중국인들은 찻잎의 질을 매우 중시한다. 차를 즐긴다는 것은 맛을 음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 정신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다.

차는 중국의 전통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중국 옛말에 '장작, 쌀, 기름, 소금, 간장, 식초, 차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차는 중국인들의 일상 생활 속에 녹아 있다. 손님을 맞을 때 주인은 항상 차 한잔을 먼저 접대한다.

중국에는 녹차, 청차, 홍차, 흑차, 백차, 화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가 있다. 그 중 푸얼차(普洱茶: 보이차), 룡정차(龍井茶: 옹정차), 비러춘(碧螺春: 벽라춘), 티에관인(鐵觀音: 철관음) 등이 유명하다.

다도(茶道)와 다예(茶藝)는 중국 차 문화의 핵심이다. 찻잎을 우려낼 때 예절과 도구를 주의하며, 다양한 찻잎의 색, 향, 맛을 음미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일본



일본에서 차는 8세기 중국에 다녀온 사절단이 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세기에 중국 선(禪)종의 가르침에 따라 차를 우려내고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이 일본에 소개되어, 곱게 간 녹차를 약재로 쓰는 것이 일본 사찰에서 보편화되었다. 14세기에는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로 차를 즐겨 마시게 되었다. 이후, 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 시대(1568 - 1600)에는 다방(茶房)의 선(禪) 문화와 함께 차와 관련된 용품 및 미학들이 발달하여 차를 마시는 규칙, 즉 다도(茶道)가 정착되었다.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다도 강습을 받는다. 다양한 종류의 차 중에 인기 있는 일본 차로는 센차(煎茶: 잎녹차), 호지차(ほうじ茶: 볶은 녹차), 겐마이차(玄米茶: 현미녹차), 무기차(麦茶: 보리차) 등이 있다. 또한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아 서양 차도 즐겨 마시며, 최근에는 우롱차(烏龍茶)를 비롯한 중국 차도 인기가 높다.

일본, 차



설날

Happy New Year.

한국, 중국, 일본에는 매년 다양한 전통 명절이 있으며, 각 명절은 특별하고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3국의 다양한 명절 중에서 특별히 새해맞이 행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3국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날짜와 기간은 서로 다르다. 한국과 중국은 음력에 따라 새해의 날짜를 정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양력에 따라 그 날짜가 고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이 모두 새해를 일년 중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날로 여긴다는 점은 동일하다.



한국



한국에서 설날(舊正: 구정)은 옛부터 음력에 맞춰 왔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유동적이다. 전통 명절 중에서 음력 설날은 추석과 함께 가장 큰 명절로 여겨진다. 설날은 보통 양력으로 1월 말부터 2월 중순 사이이며, 설날 전날, 설 당일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3일을 연휴로 정한다. 이와 구별하여 양력 1월 1일은 신정(新正)이라고 하며, 당일 하루를 쉰다.

설날 연휴기간 동안 한국 사람들은 각자 고향을 방문한다. 설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기 위해 친척들이 보통 장남의 집에 모인다. 가족들은 한복을 차려 입고 조상의 위패와 차례 음식이 차려진 차례상 앞에 모인다. 한 사람씩 순서대로 차례상 앞에서 절을 함으로써 경의를 표한다. 차례를 지낸 후에는 떡국, 전, 갈비찜, 한과 등의 음식을 함께 먹는다. 한국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떡국 한 그릇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한다. 설날 준비는 종종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실제로 가족들은 차례에 사용할 음식과 가족들에게 제공할 음식을 준비하는데 꼬박 하나절 이상을 소모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독교 가정의 경우 차례를 지내지 않기도 하지만 가족이 모여서 설 음식을 나누어 먹고 덕담을 주고받는 풍습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 연날리기

한국, 옷놀이

차례를 지낸 후 가족 중에 손아랫사람은 새해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손윗사람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 세배를 드리고 나면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준다. 남은 연휴 동안 가족들은 여러 명절놀이를 즐기는데, 이 중에는 옷놀이, 연날리기 등의 게임을 하거나 설날 특집 TV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날은 가족 간에 서로 미뤄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여겨진다.



한국, 한과



한국, 떡국



한국, 전



중국

중국의 주요 전통 명절로는 설날인 춘지에(春節: 춘절), 청명지에(淸明節: 청명절), 두안우지에(端午節: 단오절) 그리고 중추우지에(中秋節: 중추절)이 있다. 날짜는 음력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명절을 통해 중국 문화의 발전과 역사의 지속성이 강조된다. 이외에도 소수 민족들은 고유의 전통 명절을 지낸다.

음력 설날, 즉 춘지에는 중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성대하게 보내는 전통 명절이다. 이는 약 3,600년 전 상(商)왕 조 시대(1600 - 1046)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당시 사람들은 연말과 새해 초에 조상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춘지이라는 이름은 1911년 채택된 양력 설날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중국인들은 음력 12월 마지막 날부터 다음 해 음력 1월 15일까지 새해를 맞이한다. 일반적으로 춘지에는 한국의 구정과 같이 1월 말부터 2월 중순 사이에 있다.

춘지에는 가족을 위한 명절이다.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국의 교통 체증이 가장 극심한 시기이다. 사람들은 생필품을 구매하고, 새해 맛이를 위해 집을 단장하고 집을 청소한다. 꼭 필요한 장식 중 하나인 춘리엔(春聯: 춘련)은 봄을 맞이하여 문이나 기둥 등에 써 붙이는 경구이다. 축복 또는 행복을 의미하는 한자인 '복(福)'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음력 새해 전날과 당일엔 축제의 최고 절정기이다. 전통적으로 북쪽 지방에서는 자오즈(餃子: 만두)를 먹는 반면, 남쪽에서는 니엔카오(年糕: 쌀떡)를 먹는다. 사람들은 옷을 잘 차려 입고 인사를 하며, 선물을 교환하고 가족, 친척 및 가까운



친구들과 귀중한 시간을 보낸다. 어린이들은 붉은 종이를 쓴 야쑤이치엔(壓歲錢: 세뱃돈)을 선물로 받는다. 중국사람들은 폭발소리가 악령을 물리친다고 믿기 때문에 춘지에 기간 동안 불꽃놀이와 폭죽놀이를 한다. 사자춤(舞獅), 용춤(舞龍), 뱃놀이(劃船), 차이카오치아오(踩高跷: 채고교, 죽마놀이의 일종) 등 다양한 전통적 행사와 놀이를 즐기며, 사찰에서 열리는 설맞이 전통시장인 마오후이(廟會: 묘회)에 가기도 한다.



일본

일본은 축제의 나라이다. 매일 전국의 특정 지방에서는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연중행사 중에는 오쇼가쓰(お正月: 정월), 세쓰분(節分: 절분), 히나마츠리(ひな祭り: 인형 축제), 단오절, 칠석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사는 양력 1월 1일인 오쇼가쓰이다.

오쇼가쓰는 수확을 관장하는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가족을 수호하는 조상들의 영혼을 맞이하는 것에서 유래한다. 일본사람들은 대문을 소나무 가지와 대나무 등으로 만든 장식인 가도마쓰(門松), 새끼줄로 만든 시메가자리(注連飾り)로 꾸민다. 신과 영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떡 위에 꿀을 올린 카가미모치(鏡餅)를 집 안에 놓는다. 오늘날에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오쇼가쓰를 좀 더 간소하게 보낸다.



오쇼가쓰 휴일은 정초 3일간 이어지는데 이를 산가니찌(三が日)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오쇼가쓰 전날인 오미소까(大晦日)를 포함하여 새해 이전에 많은 준비를 하며, 연말에는 대청소를 한다. 또한 넵가조(年賀状: 연하장)를 휴가기간에 맞춰 교환하기 위하여 새해가 오기 훨씬 전에 미리 부치기도 한다. 오세치 요리(おせち料理), 모치(餅: 쌀떡), 조니(雑煮: 떡국) 등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동하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 연말의 마지막 날에는 장수와 복을 기원하며 소바를 먹는다. 자정에는 전국의 절에서 108번 울리는 제야의 종소리를 듣는데, 이를 조야노카네(除夜の鐘)라고 한다.



축제기간 동안 가족과 친구들은 기모노를 차려 입고, 지난 한 해에 대한 감사와 다가오는 새해의 무사안녕을 빌기 위해 신사나 절을 방문하여 새해 첫 참배인 하츠모데(初詣)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친척어른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이나 오토시다마(お年玉: 세뱃돈)를 받기 때문에 새해 연휴를 손꼽아 기다린다. 전통적으로, 어린이들은 또한 연날리기, 팽이돌리기, 하네츠키(羽根突き: 일본 전통 배드민턴 게임), 보드게임 등의 놀이를 즐긴다.



결혼식

세계적으로 가장 성대하고 행복한 의식 중의 하나는 결혼식이다. 결혼식이 가족, 친척 및 친구들이 신랑 신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라는 점은 세대를 거듭해도 변함이 없지만, 그 방식은 옛날과 확연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3국의 혼례 역사와 전통 결혼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



한국 문화에서 결혼식은 가장 중요

하고 즐거운 의식으로 여겨져 왔

다. 전통 혼례식은 매우 복잡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간소화되었다. 먼저 양가는 결혼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상견례를 한다. 과거 결혼이 중매에 의해 이루어지던 시절에는 양가 부모들이 결혼을 결정하고 승인하였다. 이후 결혼식 전날에 신랑 가족이 함께 결혼 선물을 담아 신부에게 보냈다. 이 관습은 오늘날에도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함을 가지고 신부집에 방문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결혼식은 신부 집 뜰에서 거행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신부와 신랑이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집으로 가는 것이 통례였다.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신랑은 영원한 애정과 헌신을 상징하는 기러기를 신부의 어머니에게 바쳤다. 이를 전안례(奠雁禮)라 한다.

신랑 신부는 식을 치르면서 처음으로 각자 마주 보게 된다. 신부가 신랑에게 절을 두 번 한 후 신랑이 답배를 하는 것을 교배례(交拜禮)라 한다. 그 후 신랑 신부는 조롱박 국자로 술을 나누어 마신다. 절반으로 깨진 조롱박 국자는 신랑 신부가 따로 태어났지만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한다. 혼례식에서 신부는 예식용 덧옷인 원삼 또는 활옷을 입고, 신랑은 조선시대(1392 - 1910) 관리들이 입었던 것과 유사한 의상인 사모관대를 입는다.

혼인식 후에 신랑 신부는 신랑의 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나란히 앉아서 폐백을 한다. 이때 시어머니는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신부의 치마에 대추와 밤을 던진다.



한국, 폐백용품



한국, 전통혼례 상차림



한국, 전안례 용품

한국, 전통혼례식 ©한국의집



중국

중국 문화에서 있어서 혼례는 매우 중요한 의식으로 간주되며 그 기원은 2,4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식은 전반에 걸쳐 꼼꼼하게 준비되며 성대하게 치뤄진다. 준비기간 동안 신랑 신부의 가족은 신부와 신랑의 출생일로 사주팔자를 보기 위해 중매인을 찾는다. 전통 중국사회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예물인 핀리(聘禮)가 결혼 준비기간 동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다.

신랑의 가족은 결혼식 길일을 선택한 후에 하오밍부런(好命婦人)을 지정하여 결혼식 전날 신방의 침대를 준비했다. 신부측에서도 신랑의 가족에게 혼수를 보내는데, 보통 보석, 주방용품, 침대보와 베갯잇과 같은 침구용품 등을 선물했다.

붉은색은 중국의 전통혼례에서 가장 중요한 색으로, 중국 문화에서 사랑, 기쁨, 그리고 번영을 상징한다. 결혼식 당일 신부는 붉은색의 상의, 치마와 신발을 착용한다. 신부의 얼굴 역시 붉은 비단 면사포로 가려진다. 신랑은 붉은색의 긴 두루마기와 신발을 착용하고, 어깨에는 비단 공으로 장식된 붉은 비단 띠를 두른다. 신랑과 가족들은 신부를 붉은 색으로 장식된 화지아오(花轎: 꽃가마라 불리는 신부용 가마에 태워



신랑의 집으로 데려간다. 그 동안 하객들은 즐겁게 혼례를 축하하고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 폭죽을 터트린다.

신부가 신랑집에 도착한 후 결혼식이 정식으로 시작된다. 신랑 신부는 먼저 하늘과 땅에 절을 올리고, 그 다음 부모에게 절을 한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절을 하고 결혼식을 마친다. 식이 끝난 직후 신랑 신부는 신방으로 들어간다. 그 후 하객들은 신혼부부의 첫날밤을 놀려주기 위해 신방으로 몰려가는데 이를 나오동팡(鬧洞房)이라 부른다.



중국, 전통혼례 의상



중국, 폐백



중국, 전통혼례식 ©kanegen

일본

오늘날 일본에는 다양한 결혼 방식이 있지만 전통 혼례식이 여전히 인기가 있다. 일본의 결혼은 결혼식 이전에도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한다. 남녀가 결혼하기로 결정되면 양가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 유이노(結納: 전통 약혼식)를 한다. 공식적인 약혼을 위해 양가는 음식, 인형, 돈 등의 선물을 서로 교환한다. 이러한 선물은 행운, 조화, 장수, 자식 복 등을 상징한다.

일본에서 결혼식에 관한 기록은 최소한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신사에서 전통혼례식을 거행하는 신젠(神前: 신전) 결혼식이 보다 유행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신부, 신부측 부모 그리고 신부의 친척이 신랑집으로 행렬을 하는 하나요메교레쓰(花嫁行列)로 하는 결혼식이 일반적이었다. 아주 오래 전에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식을 치르는 방식도 있었다. 1900년 황태자(이후 다이쇼 천황)가 신젠 결혼식을 치른 후, 이러한 결혼식이 일본에서 보편화 되었다. 신부는 순백색의 기모노인 시로무크(白無垢), 기모노 위에 입는 긴 덧옷인 우치카케(内掛)와 머리에 쓰는 천인 쓰노가쿠시(角隠し) 등을 착용한다. 여기서



흰색은 새출발을 상징하며 신랑은 몬쯔키하오리 하카마(紋付羽織袴)라고 불리는 검은색 상의와 전통 일본식 바지를 입는다. 신랑 신부의 가족과 가까운 친척만이 신도식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이 관례다.

일본의 전통 결혼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정확 의식, (2) 신센(神饌: 신찬, 신에게 바치는 음식과 술), (3) 신관(神官)이 신에게 올리는 노리토(祝詞: 축사), (4) 기념술로 제주(祭酒)인 미키(神酒)를 신부와 신랑을 위해 내리고 이를 나누어 마시는 산산쿠도(三三九度), (5) 신랑 신부의 혼인서약 낭독, (6) 신관(神官)과 신랑 신부가 다마구시(玉串)라고 불리는 상록수 가지를 바침, (7) 술을 같이 마시므로써 이루어지는 가족들 간의 서약, (8) 바친 음식을 내림, 그리고 (9) 의식을 종료하는 신관의 절로 마무리 된다.



일본, 전통혼례식 ©LHOON



일본, 전통혼례식 ©gwaar

스포츠

한국, 중국, 일본은 각각 고유한 스포츠 문화를 가지고 있다. 3국의 전통 스포츠는 여느 다른 여가 활동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스포츠는 정치, 사회, 문화의 산물임과 동시에 각 나라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3국의 국민들은 이러한 전통 스포츠를 보존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과 함께, 현대 스포츠를 관람하고 직접 참여하며 즐긴다.

한국



한국의 전통 스포츠 씨름

씨름은 레슬링 형식의 한국 전통 스포츠다. 씨름은 다른 부족 또는 야생 동물과의 싸움으로부터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방어적 측면에서 고안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씨름은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것으로 발전하여, 역사, 나아가 문화 유산과 가치관의 결합을 반영하게 되었다. 씨름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손 기술, 다리 기술, 허리 기술, 그리고 통합 기술 네 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씨름에서는 한 선수가 다른 선수를 땅에 넘어뜨릴 때까지 경기가 진행된다. 무릎 위의 신체가 지면에 먼저 닿으면 진 것으로 인정된다. 씨름선수는 서로 다른 색깔의 무명띠인 살바를 찬다. 살바는 오른쪽 다리 둘레에 두르며, 매듭으로 묶어 대퇴부 주위에 고리를 만든다. 또한 씨름선수들은 시합에서 승인된 짧은 바지만을 입는 것이 허용된다.

씨름에는 아마추어와 프로 경기가 있다. 아마추어 시합은 지역 및 전국 단위로 열리는 반면, 프로 시합은 전국 단위로만 열린다. 개인 및 단체전은 다시 체급별로 나누어지며 서로 같은 체급의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된다.



한국, 씨름



한국 태권도 ©Republic of Korea



한국의 전통 스포츠 태권도

태권도는 심신의 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전통 무술이다. 이 스포츠의 장점은 건강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태권도는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처음 국제 무대에 등장했으며, 2000년 시드니 하계 올림픽에서 올림픽 정식종목이 되었다. 이후 해가 거듭되면서 국제적 명성이 높아지며 글로벌 스포츠로 발전해왔다.

태권도라는 이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발과 주먹의 무술이지만, 방어를 우선하는 기술 습득을 강조하며 평화와 공정성을 존중한다. '태(踏)'는 발을 의미하며 '권(拳)'은 주먹을 의미하고 '도(道)'는 길 또는 무술을 의미한다. 초심자는 10급 흰 띠로 시작하며, 최고 등급인 1단의 검은 띠를 목표로 수련한다.

태권도 경기 시 선수들은 보호기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한 경기는 3분씩 3라운드로 구성되며 각 라운드 사이에는 1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선수들은 발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발은 발목 뼈 아래의 부분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팔을 편 상태로 바르게 쥔 주먹의 앞부분을 이용하여 상대 몸통을 공격해 점수를 얻는 손기술도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기 위해 손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현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오늘날 한국인들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긴다. 가장 많은 국내 팬을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로는 축구와 야구가 있다. 2002년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한 FIFA 월드컵 성공 개최는 한국 축구의 전환점이었다. 한국 국가대표팀은 손흥민, 기성용 등 젊고 실력 있는 한국 선수들이 국제무대에 진출함으로 인해 꾸준히 아시아 최강팀 중의 하나로 남게 되었다. K-리그라고 불리는 한국의 국내 축구리그는 많은 관중을 동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여가 활동으로 축구를 즐긴다.

야구 또한 한국에서 사랑받는 스포츠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소속 10개의 프로팀이 참여하는 한국의 프로 리그는 최근 열광적인 팬들을 많이 양산해냈다. 한국 국가대표 야구팀은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그리고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추신수, 류현진 등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선수도 등장하였다.

한국은 또한 다른 많은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는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상징이다. 박세리, 최경주, 김미현 등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 또한 많이 배출하였다.

한국인들은 취미생활, 친목활동, 자기계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스포츠를 즐긴다. 등산과 자전거 타기는 연령에 관계없이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다. 축구, 야구 등 여럿이서 하는 스포츠의 경우 가까이 사는 주민, 직장동료 혹은 온라인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동호회를 만들기도 한다. 최근에는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을 통해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e스포츠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다.



한국, 김연아 ©(QUEEN YUNA)



중국의 전통 스포츠
타이지첸(太極拳: 태극권)

타이지첸(太極拳: 태극권)은 연속된 느린 동작을 사용하여 긴장 완화, 건강 및 자기 방어를 촉진하는 중국의 전통 무술이다. 타이지첸은 상호작용하는 힘을 이용하여 겨루는 무술이다. 타이지첸은 원래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원칙을 토대로 하는 중국의 철학적, 종교적 전통인 도교(道敎)에서 유래되었다.

타이지첸 격투 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은 '상대방에 붙고 움직임에 따르는(沾粘連隨)' 능력이다. 다른 중요 기술로는 밀기, 당기기, 둘러싸기, 쓸기, 부딪치기, 조르기, 때리기 및 집어 던지기가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수행자가 힘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부드러운 무술은 여러 측면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타이지첸은 해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킨다. 호흡 조절 기술은 긴장 완화를 촉진시키며, 유연한 몸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피로를 없애는데 필요한 선천적 능력을 고양시킨다. 이러한 육체적 긴장완화 기술은

힘과 내부 균형을 강조하고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타이지첸은 건강에 유익한 생활 체육이자 전문 스포츠로서 전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중국, 타이지첸



중국, 싸이룽저우 ©曾 成訓



중국의 전통 스포츠
싸이룽저우(賽龍舟: 용선경주)

싸이룽저우(賽龍舟: 용선경주)는 평화, 행운, 그리고 건강의 증진을 목표로 중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경주의 기원은 약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중국의 음력 5월 5일 단오절에 벌어지는 풍습이다.

이 전통 경기는 중국 전국시대(BC 476 - AD 221) 시인 중의 한 사람인 취 유엔(屈原: 굴원)을 기념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취 유엔은 망명 시절 고국이 정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사람들은 물고기들이 취 유엔의 시체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을 치며 대나무 잎을 이용해 피라미드 모양으로 싹 찹쌀 만두인 쑹즈(粽子: 종자)를 물에 던졌다. 그 후로 중국 사람들은 그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싸이룽저우를 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용은 힘, 권력 및 수호를 상징하는 국가의 상징이다. 싸이룽저우는 중국식 전통 배 위에서 하루 종일 계속되는 경주이다. 이 신나는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가장 강하고 빠른 용선을 제작하려고 노력한다.

원래 이 경주는 주로 중국 남쪽지방에서 행해졌는데 1984년 중국 정부가 싸이룽저우를 공식 중국 스포츠로 지정하였다. 최근에는 이 경주가 아시아와 서양 국가에도 보급되어 중국의 전통과 현대 사회의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중국 사람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의 대중 스포츠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었다. 베이징은 2015년에 2022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유치를 확정 지으며 사상 첫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도시가 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구기 종목이 인기가 높다. 현재 축구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며, 중국축구협회(CFA: 中國足球協會)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다. 국내 리그로는 16개의 팀이 참가하여 경기를 펼치는 중국슈퍼리그(CSL: 中國足球超級聯賽)가 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유럽 축구리그에도 관심을 갖는데 특히 영국, 독일, 스페인 및 이탈리아 리그의 팀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다.

농구도 중국에서 인기있는 구기 종목 중에 하나다. 전국 규모의 리그를 관장하는 중국농구협회(CBA: 中國籃球職業聯賽)는 여러 도시에 팀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다수의 국제 농구 스타가 중국에서 탄생하였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구선수인 야오밍(姚明)은 2002년 미국프로농구(NBA)에 합류하면서 중국의 농구 붐을 이끌었다.

탁구, 배드민턴, 달리기 등은 보편화된 스포츠로서 중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중국 사람들은 스포츠를 단순한 칼로리 소모를 넘어 친목 활동으로 생각한다.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공장소는 태극권, 걷기 운동, 스쿼어 댄스 등을 즐기는 어른들로 붐빈다. 스쿼어 댄스는 단체 춤의 일종으로 은퇴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젊은 세대는 배드민턴, 달리기, 요가 및 농구를 좋아한다.



중국, 베이징 국가체육장 ©Romain Pontida



일본, 스모 ©davidgsteadman

일본

일본의 전통 스포츠 스모(相撲)

스모(相撲)는 일본의 전통 무도(武道)이다. 원래 스모는 종교 의식의 한 형태였으며 스모 경기자는 풍작을 위해 기원하였다. 나라(奈良) 시대(710 - 794)에 권투와 레슬링의 요소들을 섞은 형태에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되어 스모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수 년간 지속되었던 스모에 대한 천황의 지원이 있었다. 종교적 의식이라 할 수 있는 스모는 전통적으로 신사에서 거행되었다.

스모의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일본 전통문화의 많은 부분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리키시(力士)라고 불리는 선수들은 무서운 자세를 취하고 모래로 만들어진 둥근 씨름판인 도호(土俵)에 소금을 뿌린다. 일본 사람들은 도호를 신성한 장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일종의 전통적인 정화 의식의 일부이다. 리키시는 마와시(廻し)라 불리는 살바를 착용하고, 머리에는 전통적인 일본의 머리 모양을 위해 마게(鬘)를 맨다. 스모 경기에서는 보통 키가 크고 육중한 몸매를 가진 두 명의 리키시가 도호 위에서 서로 마주 선 후, 둘 중 한 쪽의 신체 일부분이 바닥에 닿거나 또는 도호 밖으로 밀려날 때까지 서로 밀어붙인다.

일본의 수많은 전통 관습이 녹아 있는 스모는 스포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스모는 일본 전통 문화의 집약체로서 오늘날에도 일본 대중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일본, 하쿠호

일본의 전통 스포츠 주도(柔道: 유도)

주도(柔道: 유도)는 일본의 대표 무도(武道)의 하나이다. 1882년에 처음 등장한 주도는 더 오래된 무도인 주주썸(柔術: 유술) 기술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정신적 훈련을 수반하였다. 그 핵심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이다. 주도에서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센 사람이 항상 이기지는 않는다는 점이 관중들을 더욱 매료시킨다. 주도는 이후 전세계로 퍼져 나갔으며 1964년 도쿄 하계 올림픽 이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일본에서는 선수들이 상의, 바지와 띠로 구성된 흰 도복을 착용한다. 그러나 국제 경기에서는 두 경기자를 구분하기 위해 한 선수는 흰색 도복을 입고, 또 다른 선수는 푸른색 도복을 입는다. 주도의 정신은 공격해오는 힘을 역이용하여 상대를 이기는 것이다. 사각형 매트에서 열리는 시합에서는 두 선수가 67개의 던지기과 29개의 굳히기 기술의 조합과 사용을 통해 경합한다.

주도경기의 점수는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 주어진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기술은 상대방을 던져 그의 등이 완전히 바닥에 닿게 하는 이폰(一本: 한판승)이며 승부는 그 즉시 가려진다. 시합을 끝내는 다른 방법은 상대선수가 '항복'이라고 말하거나, 손으로 몸 또는 바닥을 두 번 치게 만드는 것이다. 선수들은 시간 벌기, 매트 밖으로 나가기 또는 공격 거부 등 상대방이 저지른 벌점으로 점수를 얻을 수도 있다.

현대 일본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일본 사람들은 전통 스포츠와 더불어 서양으로부터 전해진 여러 구기 종목을 즐긴다.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야구와 축구이다. 일본 프로야구는 1934년 공식 발족한 이래 지속적으로 국내 팬을 더해갔다. 또한, 인기 야구선수들의 진출로 인해 미국 메이저리그도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많은 일본 팬들이 춘계 및 하계 고시엔(甲子園)으로 알려진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 열광하기도 한다. 고시엔 선수들은 일본 프로야구팀의 통상적인 선수 공급원이 된다.

축구에서는 J리그로 알려진 프로 축구 리그가 유명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J리그와 더불어, 많은 일본 사람들은 국제 축구경기 관람을 즐긴다. 야구와 마찬가지로 많은 일본 축구선수들이 해외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경기 시청 또한 보편화 되어있다. 특히, 월드컵 기간에는 축구 관련 뉴스가 매일 스포츠 뉴스 전면을 장식한다. 최근에는 일본 여자 국가대표팀인 나데시코 재팬(なでしこジャパン)이 2011년 FIFA 월드컵 여자 축구 대회에서 우승했고, 그 다음해 런던 하계 올림픽에서 우승하면서 인기를 더해 갔다.

앞서 언급한 스포츠 이외에도 일본인들은 여러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거나 직접 참여하여 즐긴다. 또한, 스타 선수의 영향으로 해당 스포츠가 인기를 얻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7년에 골프선수 이시가 와료(石川遼)가 먼싱웨어 오픈 KSB컵의 최연소 우승자로 명성을 얻은 후,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이 골프에 주목하게 되었다. 일본은 또한 남녀 피겨스케이팅의 강국으로서 아사다 마오(淺田真央), 다카하시 다이스케(高橋大輔), 그리고 하뉴유즈루(羽生結弦)와 같은 뛰어난 스케이트 선수를 배출해 왔다. 한편,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탁구선수, 후쿠하라 아이(福原愛)는 최근 탁구 열풍을 주도했다.

일본인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를 즐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방과후 클럽이 있다.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 열정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종종 지역대회와 전국대회에 참가하기도 한다. 직장인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헬스, 요가, 그룹댄스 등이 인기가 있다.



일본, 프로야구 ©m-louis. ©

예술

예술은 우리의 생활과 문화를 풍성하게 한다. 특정 사회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많은 부분 TV, 영화 및 기타 미디어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은 각자의 고유한 역사를 통하여 광범위하고 매력적인 예술을 창조하였다. 이 장에서는 3국의 현대 예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과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전통 예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



농악

농악 및 풍물놀이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 되었으며 잘 알려진 전통 대중음악이다. 농악은 노래와 춤 그리고 음악에 맞춘 곡예를 통합하는 종합 예술이다. 이는 농부들이 풍작을 기원하고, 경작하는 동안 지친 몸을 재충전하며 가을에 풍년을 축하하기 위해 행하던 전통에서 기원하였다. 농부들의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예술의 한 형태로서 농악은 이후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발전했다.



농악은 일반적으로 실외에서 이루어지며, 공연자들은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머리에 상모를 쓴다. 공연자들은 상모로 원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돌린다. 또한 음악에 맞춰 걷거나 뛰면서 타악기와 관악기를 연주한다. 연주자들은 관중들이 함께 공연을 즐기기 위해 같이 춤을 추도록 유도한다.

또한, 무대 공연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사물놀이는 농악에서 발전한 새로운 형태의 한국 타악기 음악 공연이다. 사물은 연주자들이 연주에 사용하는 4개의 악기를 지칭하며, 매우 빠른 리듬이 특징이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거나 추임새를 넣음으로써 공연에 참여한다. 이러한 새로운 양식의 음악 공연은 1978년 시작된 이래 급속히 인기를 얻었다.



한국, 농악



판소리

판소리는 소리꾼과 고수가 하나의 이야기를 노래로 통해 주고받는 형식의 공연이다. 판소리는 음악 반주 없이 공연이 진행되는 일종의 구두 낭송이다. 소리꾼은 한복을 입고 접이식 부채를 한 손에 들고는 창, 이야기 및 모방하는 몸짓을 통해 판소리의 중심 역할을 한다. 고수는 소리꾼과 장단을 맞추고 관중의 뜨거운 반응을 자아내는 역할을 한다. 공연 시간은 상당히 길수 있는데 어떤 공연은 완창을 하는데 9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판소리의 설정, 즉 배경, 등장인물 및 상황은 조선시대 (1392 - 1910)에 뿌리를 둔다. 본래 판소리는 사람들의 기쁨, 슬픔과 분노를 반영하였다. 판소리는 원래 12 마당의 모음으로 구성되었으나 지금은 다섯 마당만이 남아있다. 판소리는 2003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판소리에서는 소리꾼이 본연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창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통한다. 자신의 음악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소리꾼은 명창이라고 부른다. 한편, 관객은 고수가 하는 것처럼 추임새로 공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공연에 참여하기도 한다.



한류

최근 들어 세계는 극적인 한류의 상승세를 목격했다. 1990년대에 시작된 한류는 음악, TV 드라마 그리고 영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다른 국가에서도 인기를 얻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중국 언론사를 통해 처음 소개되었다. 그 후로 한류는 점차 그 영향력을 더해갔고 한국 제품에 대한 국제적 수요 제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뛰어난 문화를 아시아와 세계로 널리 퍼뜨리는 매개체가 되었다.

한류는 TV 드라마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대중음악(K-pop)이 한류를 이끌고 있다. 2000년 이후 K-pop은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K-pop 스타들은 출중한 용모와 목소리, 현란한 춤동작과 멜로디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소녀시대, 빅뱅, 싸이, 방탄소년단(BTS), 트와이스, 블랙핑크 등과 같은 가수들은 아시아 국가 뿐 아니라 서구권 국가에서도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영화도 한류를 이끌고 있다.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기생충'은 2019년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 연출, 국제 영화, 각본 등 네 개 부분에서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기생충'은 오스카 역사상 최초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비영어 영화가 되었다.



한국, 가수 방탄소년단 ©Mnet



징궈(京劇: 경극)



징궈(京劇: 경극)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오페라이다. 지난 200년 동안 다른 지방 오페라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통합을 통해 징궈는 노래, 말하기, 연기, 춤과 무술이 통합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징궈는 중국의 문화를 구체적인 이야기로 풀어내고, 아름다운 얼굴 분장, 훌륭한 의상과 우아한 몸짓의 인물들을 통해 관중을 매료시킨다.

징궈에서는 남자 배역을 뜻하는 생(生), 여자 배역을 뜻하는 단(旦), 알록달록한 얼굴 분장을 한 징(淨), 그리고 광대 배역의 초우(丑) 등 네 가지 배역으로 나누어진다. 각 역할은 인물의 나이, 성별 그리고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인다. 각 역할은 더 많은 인물들로 세분화 된다. 대체적으로 모든 역할의 화장, 의상 및 몸짓의 사용은 인위적으로 과장되지만 징과 초우의 경우에만 정교한 얼굴 화장인 렌푸(臉譜)를 한다.

얼굴 화장은 다양한 색상과 형태를 통해 등장 인물의 성격, 성격 및 운명을 상징한다. 기본적인 색상은 적색, 흑색 및 백색이다. 일반적으로 적색은 충성심, 지혜, 성실성 등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흑색은 용기와 청렴을 나타낸다. 백색은 교활함, 교묘함 등의 부정적 측면을 나타낸다. 또한 자주색, 황색, 청색, 녹색 등도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짜지(雜技: 기예)

중국의 짜지(雜技: 기예)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유산을 자랑하는 공연예술이다. 서커스(雜耍), 마술, 및 기교(技巧)는 짜지의 기본 형태라 할 수 있다.

서커스는 공연자가 사발, 접시와 모자를 돌리며 여러 가지 조합의 묘기를 보여주는 기술이다. 대부분의 소품은 작고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로 이는 짜지가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 예술 형태이기 때문이다.

마술은 주로 눈속임, 마술과 연관되며 전기장치, 화학, 기계학과 색상을 통합한다. 연기자는 특별한 계략과 신중하게 설계된 공연 기법으로 공연한다. 손을 사용하며 빠르고 재치 있는 숨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만들어 낸다.

기교는 연기자가 장대를 들어 올리거나 발로 물체를 저글링하는 등 물체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연기자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허리, 다리와 머리를 사용하는 어려운 훈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한다.

전통적으로 베이징에 있는 텐차오(天橋)가 짜지를 관람하기 위해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연기자들이 이 지역에 모여서 공연을 하곤 한다. 요즘에는 텐차오 짜지극장(天橋雜技劇場)에서 세계적 수준의 곡예 공연을 볼 수 있다. 허베이성(河北省)의 우차오현(吳橋縣)은 중국 짜지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짜지 ©shizhao



중국 영화

중국의 영화산업은 1913년 탄생하여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79년부터 현저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본토 영화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더불어 상강(香港: 홍콩과 타이완(臺灣: 대만)의 영화 역시 성공을 거두었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영화 시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영화는 역사적, 사회적 관계를 구현해 낼 뿐 아니라 도시화와 사회 운동의 증가 등 중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좋은 잣대가 된다.

장 예모(張藝謀), 첸 카이거(陳凱歌)와 같은 감독들이 이끄는 중국의 제5세대 영화 회사들은 중국 영화의 우수함을 전 세계에 증명하였으며, 제43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1993년 칸느 영화제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하였다. 지아 장커(賈樟柯), 장 웬(姜文) 등 신세대 중국 영화 감독들 역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청 룡(成龍: 성룡)과 장 쑤이(章子怡) 같은 배우들은 세계 정상급의 스타가 되었고 중국 영화의 영향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데 공헌하였다.



중국, 청 룡 ©Walt Disney Television



중국, 장 예모



©The Nohgaku Performers' Association, 일본, 아이노우에 시테역(주연 코마세 나오키)



일본, 한나(般若) 가면 ©Japan Arts Council

연기자들은 비단에 수를 놓아 만든 화려한 의상을 입고 옷칠을 한 나무 가면을 착용한다. 마스크에는 다양한 변형이 있지만 크게 젊은 여성, 나이든 남성, 악마와 같은 몇 가지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등장인물들 또한 다양한 손 소품을 사용하여 부채를 접는 등의 몸짓을 통해 대사를 전달하기도 한다. 3~4명의 악사들이 무대 뒤편에 앉아서 피리와 손북 등 악기를 연주한다. 또한 주인공의 대사와 생각을 노래로 전하는 합창단도 있다.

일본

노(能)

일본에는 노, 교겐(狂言), 가부키(歌舞伎) 그리고 일본 인형극인 분라쿠(文楽) 4 가지 형태의 고전 연극 양식이 있다. 노와 교겐, 즉 '노가쿠(能樂)'는 가부키(歌舞伎), 분라쿠(文樂)와 함께 유네스코의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4세기 초 칸아미(觀阿彌)와 제아미(世阿彌)가 창시한 노는 세계에 남아 있는 연극 중 가장 오래된 것이기도 하다. 노의 핵심은 유우겐 노 비(幽玄の美: 유현의 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노의 무대는 옥외에 설치되었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대형 구조물 안에 설치된다. 무대는 웅장한 신도 스타일의 지붕으로 덮인 본무대와 무대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다리로 구성되어 있다. 노의 스토리는 대화 뿐만 아니라 노래 부분인 우타이(謠), 음악 반주를 의미하는 하야시(囃子), 그리고 춤인 마이(舞)를 통해서도 전달된다.

가부키(歌舞伎)

가부키(歌舞伎)는 정성이 담긴 의상, 특색 있는 화장, 형식화된 춤, 음악과 연기로 특징지어지는 일본의 전통 악극이다. 노(能)가 섬세함과 웅장한 동작이라는 특성을 가진다면 가부키는 극적인 움직임과 과장된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 가부키는 에도(江戸) 시대(1603 - 1867)에 생겨났으며 400년의 역사를 거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본 고전연극의 4가지 주요한 형태 중 하나로서 가부키는 노와 분라쿠 등 다른 종류의 일본 고전연극과 여러 공통적인 요소를 갖는다. 무대 장치의 일부는 가부키 특유의 것이지만, 전반적인 무대 양식은 노의 무대에서 차용한 것이다. 시나리오의 경우 분라쿠(文樂)라고 불리는 일본 인형극의 많은 요소가 섞이고 변형되어 가부키 작품이 되었다.

초기에는 여성 배우들만으로 가부키 공연이 이루어 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인 남성들만 참여하는 공연예술로 발전하였다. 가부키의 발전과정에서 남자 배우가 연기를 맡는 여자 배역인 온나가타(女方)는 가부키만이 가지는 특성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이 연극 양식의 또다른 독특한 부분은 가부키 배우들의 분장인 쿠마도리(隈取)이다. 배우들은 얼굴, 목과 손을 흰 화장으로 덮고, 입술과 눈 주위에 빨강, 검정, 파랑 등 두드러지는 색으로 선명한 선을 긋는다. 연기자들은 또한 자태를 강조하기 위해 화려한 양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큰 가발을 쓴다.

가부키 공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악기는 삼현의 기타인 샤미센(三味線: 삼미선)이다. 무대 음악 이외에도 가수와 샤미센 연주자가 피리와 다양한 북으로 무대 뒤편에서 연주한다.



일본, 가부키

애니메이션·만화

애니메이션과 만화는 일본의 대표적인 대중문화로 알려져 있다.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주요 소비층은 어린이였지만, 최근에는 사회 문제 등 다양하고 심오한 주제와 장르를 다루며 더 광범위한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드는 애니메이션은 나라와 세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대표작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제52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로서는 최초로 황금곰상을 수상하였다. 이 영화는 또한 제7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로부터 '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톰', '드래곤볼'은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해외에서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포켓몬은 애니메이션을 넘어 카드 게임, 캐릭터 굿즈, 휴대폰 게임 등의 상품으로 출시되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애니메이션과 만화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따라 코스프레를 즐긴다. '원피스', '진격의 거인', '귀멸의 칼날' 같은 비교적 최근의 애니메이션 또한 전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othree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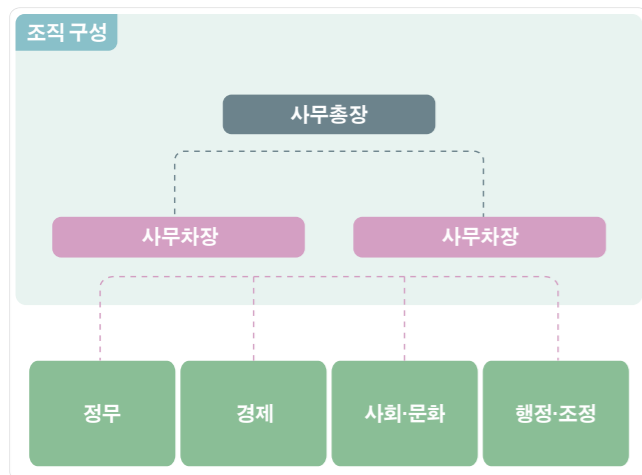
한중일 협력과 3국협력사무국(TCS)

한중일 3국 협력은 1999년 ASEAN+3 정상회의(필리핀·마닐라)를 계기로 개최된 3국 정상 간 첫 조찬 회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3국은 ASEAN+3 정상회의와 별도로 최초의 3국 간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외교, 환경, 통상, 경제, 재난관리, 교육, 문화 등 21개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회의를 운영해 왔습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은 한중일 3국의 평화와 공동번영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입니다. TCS는 한중일 3국 정부가 서명·비준한 협정에 의거하여 2011년 9월 서울에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각국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3국 정부가 매년 사무국 운영예산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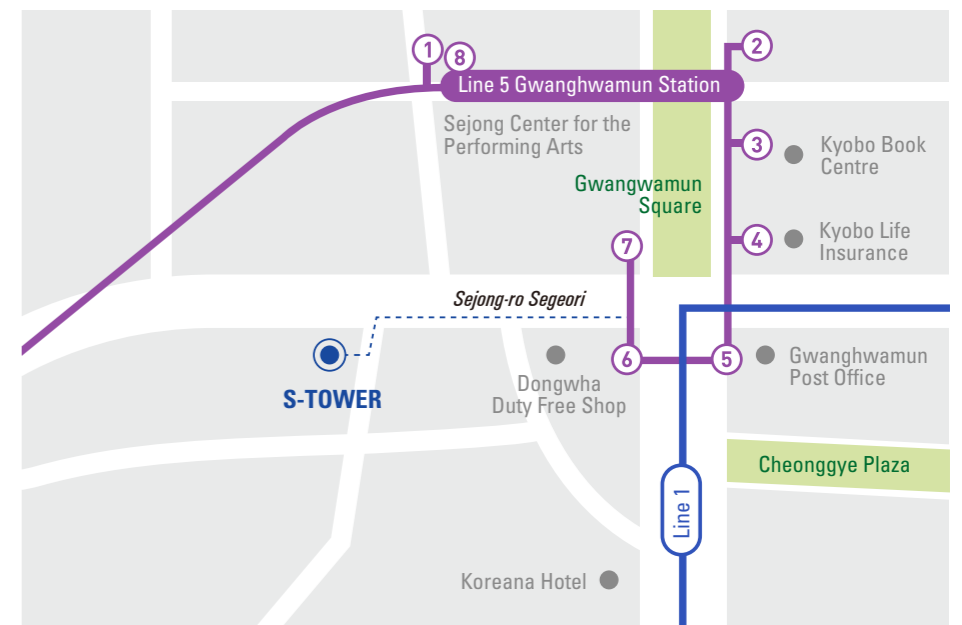
TCS는 3국 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협력사업의 발굴과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3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중일 3국협력 국제포럼(IFTC), 3국 청년 모의정상회의(TYS), 한중일 기업가 포럼, 한중일 FTA 세미나, 한중일 언론인교류프로그램(TJEP),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TCVD)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CS는 협의이사회(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2명) 및 정무, 경제, 사회·문화, 행정·조정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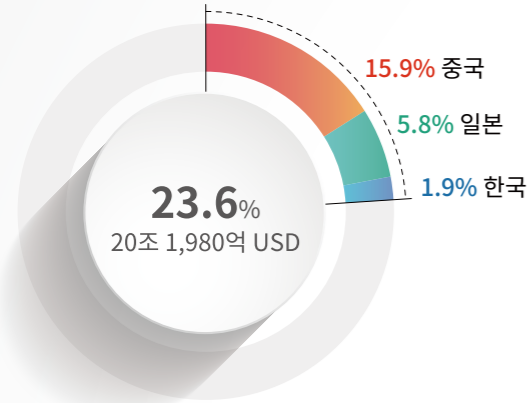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20층 (우:03185)
전화 02-733-4700
팩스 02-733-2525
이메일 tcs@tcs-asia.org



한중일 주요 통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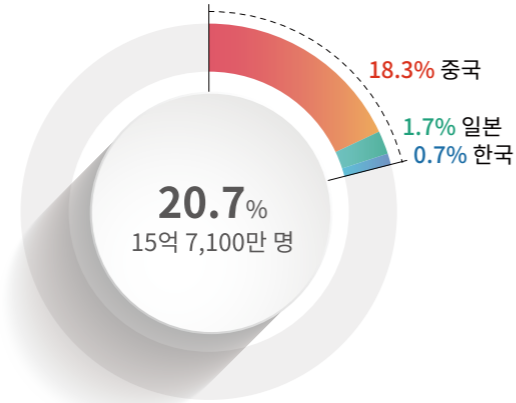
국내총생산(GDP)

출처 : WB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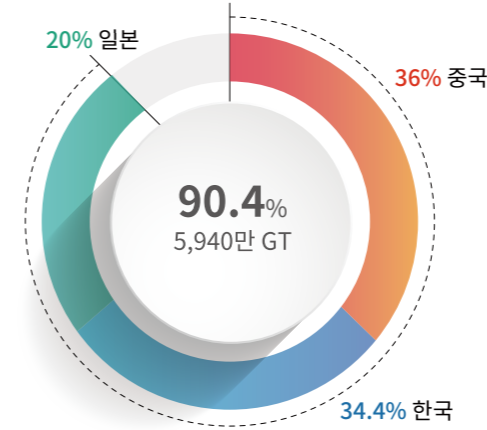
인구

출처 : WB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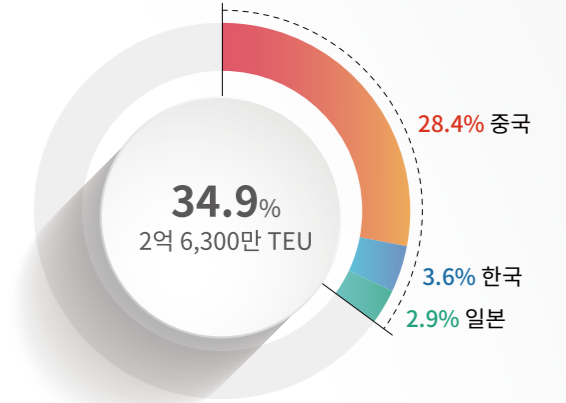
선박 건조량

출처 : UNCT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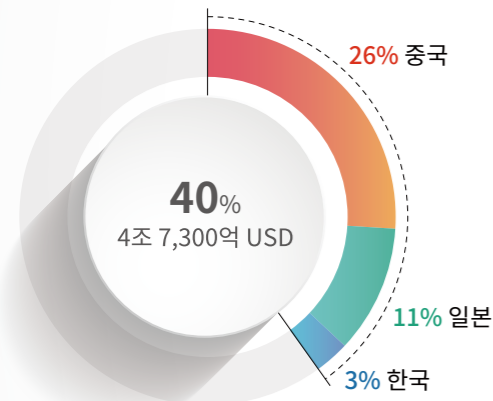
컨테이너항 물동량

출처 : WB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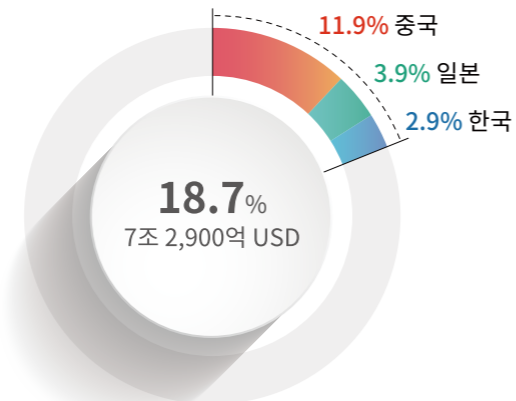
외환보유액

출처 : WB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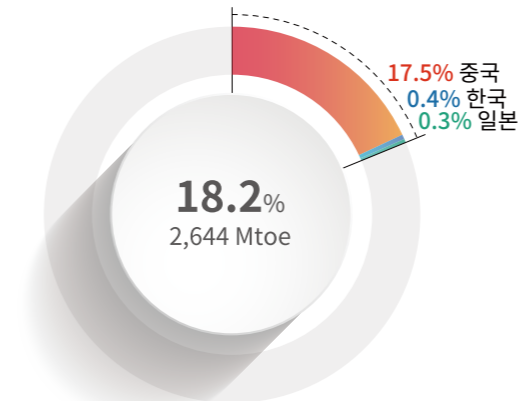
무역량

출처 : IMF-DO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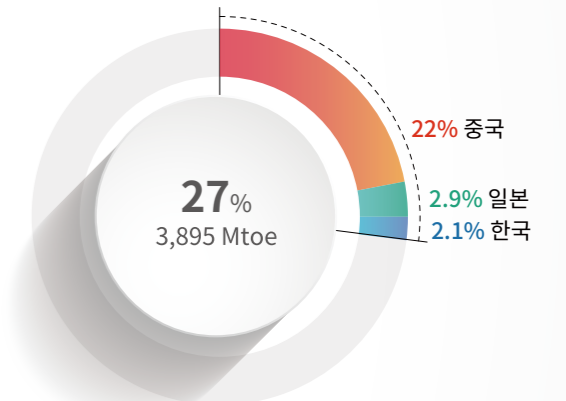
에너지 생산

출처 : Ener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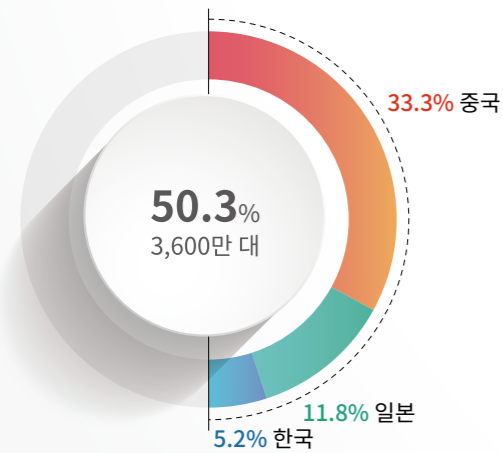
에너지 소비

출처 : Ener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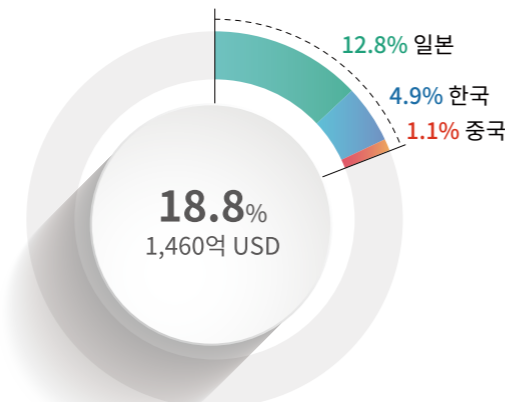
승용차 생산량

출처 : O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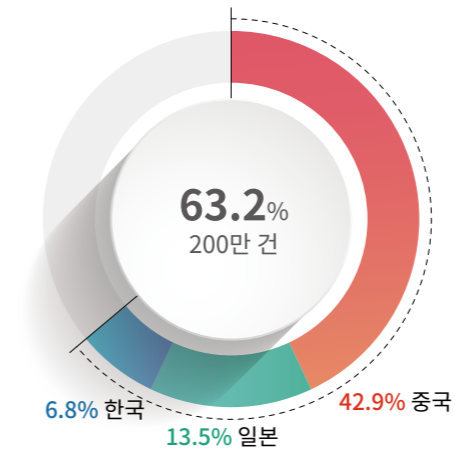
자동차 수출액

출처 :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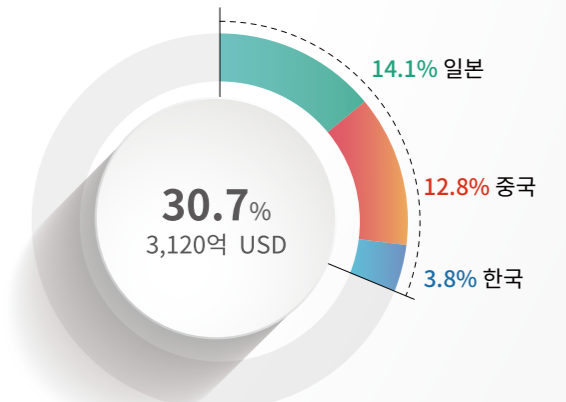
지식재산권(특허 출원)

출처 : WIPO



해외직접투자액(유출액)

출처 : UNCTAD



참고문헌

Asahi Breweries, LTD., Japan

http://www.asahibeer.co.jp/

Asian Education Media Service

http://www.aems.illinois.edu/index.html

An Introduction to Korean Culture / Koo Nahm / Hollym

British Tae Kwon Do

http://www.britishtaekwondo.org.uk/

Cabinet Office, Japan

http://www.cao.go.jp/index-e.html

Central Research Services, Inc., Japan

http://www.crs.or.jp/

China.com.cn

http://www.china.com.cn/aboutchina/zhuanti/cwh07/node_7031338.htm

China Culture.Org

http://www1.chinaculture.org/index.html

China Daily

http://www.chinadaily.com.cn/english/home/index.html

China, Japan, Korea: culture and customs: ju brown

https://books.google.co.kr/books/about/China_Japan_Korea.html?id=3r-3YH3t45cC&redir_esc=y

China.org.cn

http://www.china.org.cn/

China Today

http://www.chinatoday.com/

Chinese Historical and Cultural Project

http://www.chcp.org/index.html

Confucius institute

http://www.cim.chinesecio.com/hbcms/f/article/info?id=b57dafabcde547efbab46b0492638731

Consulate-Genera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Los Angeles

http://losangeles.china-consulate.org/eng/

Cultural China

http://www.cultural-china.com/

East Asian Tea Institute

http://www.ea-tea.co.kr/

E-national Indicators, ROK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Facts about Korea/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ollym

Foreignercn.com

http://www.foreignercn.com/index.php

Gochang Pansori Museum

http://pansorimuseum.com/eng/

Hakutsuru Sake, Japan

http://www.hakutsuru.co.jp/english/

Hanban (Confucius Institute Headquarters)

http://english.hanban.org/

Han Style, ROK

https://www.han-style.com/english/

Himeji City

http://www.city.himeji.lg.jp/index.html

Himeji Tourist Information Hime no Michi

http://www.himeji-kanko.jp/en/

Japan Arts Council

http://www.ntj.jac.go.jp/english.html

Japan as it is / Gakken

JapanBall.com

http://www.japanball.com/index.htm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http://www.studyinkorea.go.kr/ja/main.do

Japan Fact Sheet

http://web-japan.org/factsheet/index.html

Japan Foundation

http://www.jpf.go.jp/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http://www.jnto.go.jp/eng/

J-Cast.com, Japan

http://www.j-cast.com/japan/

J. League

http://www.j-league.or.jp/eng/

Kabuki

http://www2.ntj.jac.go.jp/unesco/kabuki/en/index.html

Kids Web Japan

http://web-japan.org/kidsweb/index.html

Kiku-Masamune Sake, Japan

http://www.kikumasamune.com/index.html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www.sejonghakdang.org

Kokugakuin University

http://www.kokugakuin.ac.jp/index.html

Korea Be Inspired

http://english.visitkorea.or.kr/enu/index.kto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http://www.kcti.re.kr/index.dmw

Korea Funeral Culture & Policy Institute

http://www.kfcpi.or.kr/

Korean Cultural Service New York

http://www.koreanculture.org/main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http://www.kocis.go.kr/

Korean Gallup

https://www.gallup.co.kr/

Korea.net

http://www.korea.net/

Korea Traditional Wine

http://www.koreansool.com/default/

Lonely Planet China / Damian Harper / Lonely Planet

Liquid Jade: The Story of Tea from East to West

https://www.amazon.com/Liquid-Jade-Story-East-West-ebook/dp/B00IQOC2LC/ref=sr_1_1?dchild=1&keywords=the+liquid+jade&qid=1590988848&s=books&sr=1-1

MeSay, Japan

http://www.mesay.biz/index.ht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OK

http://www.mcst.go.kr/main.jsp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Japan

http://www.mext.go.jp/engl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http://www.mofa.go.jp/index.html

National Bureau of Statistic of China

http://www.stats.gov.cn/english/

National Geographic

http://www.nationalgeographic.com/

Omotesenke Website

http://www.omotesenke.jp/list2/list2-1/list2-1-1/

People.com., China

http://www.people.com.cn/

Sankei Shimbun, Japan

http://sankei.jp.msn.com/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http://www.sejong.go.kr/global/en/index.jsp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Studying in Korea

http://www.studyinkorea.go.kr/en/main.do

Supreme Court of Korea

http://eng.scourt.go.kr/eng/main/Main.work

Takara Sake, Japan

http://www.takarasake.com/home.php

Tea Culture through Tea Leaves: Jinsu Lee and Jinmi Lee

//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mallGb=KOR&ejkGb=KOR&linkClass=081707&barcode=9788993255133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ttps://www.aks.ac.kr/

The Asahi Shimbun

http://www.asahi.com/english/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gov.cn/

The Japan Times

http://www.japantimes.co.jp/

The National Assembly, ROK

http://korea.assembly.go.kr/

The Urasenke Foundation San Francisco

http://www.urasenke.org/tradition/index.php#senrikyu

Three countries of east asia (Chinese edition): jin wengxue,

https://www.amazon.cn/dp/B004JQ0D0E

Tokyo Grand Tea Ceremony

https://tokyo-grand-tea-ceremony.jp/about.html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http://www.korean.go.kr/eng/

The University of Edinburgh

http://www.ed.ac.uk/home

Travel China Guide.com

http://www.travelchinaguide.com/

TVETipedia

http://www.unevoc.unesco.org/tviki_front.php

Umami Information Centre

http://www.umamiinfo.com/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of Tea Culture between South Korea, Japan, and

China: Geunsu Lee

https://www.naks.org/jml/conference-proceedings/126-2014-10-22-06-30-38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http://whc.unesco.org/

Urasenke Konnichian Website

http://www.urasenke.or.jp/textb/spirit/spirit2.html

Visit Seoul

http://www.visitseoul.net/en/index.do?_method=main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

World Ssireum Federation

http://worldssireum.org/

思想政治(必修)三年級(全一册) / 人民教育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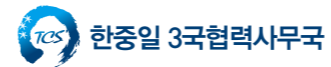
新中学校 公民 改訂版 日本の社会と世界 / 清水書店

佐藤貴悦・斎藤智文・巖鐘仁 (2015) 日中韓マナー・慣習基本辞典：

プライベートからビジネスまで知っておきたい11章. 勉誠出版.

吉村耕治・山田有子 (2019) 日本文化における紅白の意味―

日本の色彩文化の特質. 日本色彩学会誌, 43 (3) : 47-50



알기쉬운 한중일 이야기 Into the Three Countries (3판)

1판 1쇄	2013. 07
2판 1쇄	2015. 03
3판 1쇄	2020. 08

편집	오노야마 카이(小野山 香衣), 린 메이리안(林美蓮), 손하예슬, 사사오 노조미(笹尾 望美), 장하원
검토	미치가미 히사시(道上 尚史), 강도호, 차오징(曹靜), 나가후치 켄지(長淵 憲二), 김민정
펴낸이	미치가미 히사시
전화	+82-2-733-4700
팩스	+82-2-733-2525
홈페이지	www.tcs-asia.org
이메일	tcs@tcs-asia.org

ISBN 979-11-88016-33-4 03380

Copyright © 2020 by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Made by FSC certified 'Montblanc' from HANSOL paper company.

FSC refers certified mark for the product which manufactured by Eco-friendly woods not supplied from primeval forest or gene manipulation woods.



